

시민의 힘, 대구를 바꿉니다!
함께 꾸는 꿈, 현실이 됩니다!

2024년 대구참여연대 제26차 정기총회

2024년 2월 28일(수) 19:00
대구YMCA청소년회관 1층



총회 순서

개회선언

서기지명

전차 총회 의사록 확인

제1호 안건: 2023 사업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2023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2023 감사보고의 건

제4호 안건: 2024 임원 선출의 건

제5호 안건: 2024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2024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안건: 정관개정의 건

기타 안건

서기록 확인 및 폐회 선언

회원상 시상 / 감사패 수여

임원 및 활동가 인사

대구참여연대의 노래 '함께꾸는 꿈' 합창

자료집 목차

창립선언문	-----	5
전차총회 회의록	-----	9
사진으로 보는 2023년 활동	-----	15
2024 회원의견조사 결과	-----	25
2023 활동보고	-----	35
2023 결산보고	-----	45
2023 감사보고	-----	53
2024 임원 선출안	-----	57
2024 사업계획안	-----	61
2024 예산안	-----	68
부록		
○ 2023 활동일지	-----	73
○ 2023 언론보도 목록	-----	78
○ 정 관	-----	91
○ 대구참여연대가	-----	97

창립선언문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꿨시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권위주의적 정치와 성장주의적 경제라는 두 축은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와 시민사회는 아직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또한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시민의식의 보수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발전과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참여민주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 있고, 시민의 지혜와 참여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민운동은 현실의 힘에 밀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자리를 찾고, 참여와 자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지혜와 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 안이한 밀실을 떨치고 나와 참여의 광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위의 과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튼튼하고 열린 공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새로운 도전의 도구로서 대구참여연대를 창립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희망의 공동체를 일구고자 합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스스로 삶의 공간을 개혁함으로써 풍요롭고도 정의로운 미래사회를 만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어 가는 시민운동의 기본정신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자치, 협동의 정신 위에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참여의 극대화과 투명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열린 자치공간을 확보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면서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들과 함께 대구사회의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넓고 큰 참여의 마당과 틀이 절실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시민,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대구참여연대 창립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그 희망찬 길에 우리 함께 합시다.

1998년 4월 11일

대구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2023년 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3년 제25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2023. 2. 23. (목) 19:00
- 장소: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
- 참석자: 60여명
- 서기: 최나래
- 안건
 - 제1호 안건: 2022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 제2호 안건: 2022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 제3호 안건: 2022년 감사보고의 건
 - 제4호 안건: 2023년 임원선출의 건
 - 제5호 안건: 2023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제6호 안건: 2023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7호 안건: 정관개정의 건

- 서기록

[의장 선출] 19:30

장금수 사무처장이 정기총회 의장으로 박경로 공동대표를 추천하다.

회원들의 동의로 박경로 공동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다.

[개회 선언]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전차 총회 의사록 확인]

의장이 2022년 총회의 총회의사록 확인을 요청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9페이지에 있는 전차 총회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
다. 회원들의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서기 지명]

의장이 서기로 최나래 회원을 지명하다

[안전 심사]

- 제1호 안전: 2022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의장이 안전을 상정하다.

의장이 강금수 사무처장에게 사업보고를 요청하다.

사무처장이 2022년 활동영상을 상영하고, 사업보고를 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의견개진 의사를 묻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전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의결되다.

- 제2호 안전: 2022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의장이 안전을 상정하다.

의장이 김선희 사무국장에게 결산보고를 요청하다.

사무국장이 결산보고를 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의견개진 의사를 묻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전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의결되다.

- 제3호 안전: 2022년 감사보고의 건

의장이 안전을 상정하다.

의장이 이승익 사업감사에게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이승익 감사가 사업감사를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대독하다.

의장이 감사보고를 받았음을 확인하다.

- 제4호 안전: 2023년 임원 선출의 건

의장이 안전을 상정하다.

의장이 안건의 제안 설명을 류영준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다.

운영위원장이 임원추천안을 제안, 설명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의견개진 의사를 묻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건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의결되다.

새로 선출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인사말은 총회가 끝난 후 진행하기로 하다.

의장이 추후 운영위원을 추가로 인선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주기를 제안하고 회원 동의를 구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의결되다.

- 제5호 안건: 2023년 사업계획의 승인의 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김보영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김보영 소장이 사업계획을 제안 설명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의견개진 의사가 있는지 묻다.

엄창욱 회원이 조례연구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조례에 대해 참여연대에서 같이 연대하고 선두에 서주기를 당부함.

박호석 회원이 연대활동 중 금호강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제안함.

손광락 회원이 영남대 문제에 대해 대구시민단체 연결의 역할을 제안함.

의장이 추가 질의가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이 안건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안건이 의결되다.

- 제6호 안건: 2023년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다.

의장이 안건의 제안설명을 김선희 사무국장에게 요청하다.

사무국장이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다.

의장이 회원들에게 질의 및 의견개진 의사를 묻다.

고한용 회원이 광고수입비에 대해 부연설명을 요청하고, 지출감소 및 효과적 홍보를 위해 소식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함.

사무국장이 광고수입비를 설명하고 소식지 제작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 후 추후 홍보계획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이 대해 설명하다.

의장이 안건의 승인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회원들의 동의 및 제청으로 안건이 의결되다.

- 기타 안건

의장이 기타안건으로 상정할 것이 있는지 회원들에게 묻다.

의장이 회원들로부터 기타안건이 없음을 확인하다.

[서기록 확인 및 폐회]

의장이 회원들에게 회의록 확인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요청하다.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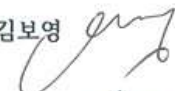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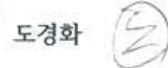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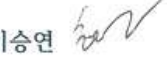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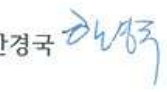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3.2. 23. 20:35)

2023. 2. 23. 서기 최나래

위 회의록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3. 16

대구참여연대 제23기 운영위원

김보영		김채원	
김형진		도경화	
류영준		박근식	
문창식		양 희	
이승연		최미나	
한경국			
김희진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사진으로 보는 2023년 활동

사진으로 보는 2022년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브랜드를 시장 마음대로, 안 돼! 시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해야</p> <p style="text-align: center;">- 7대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상징물관리조례' 없이 시장 마음대로 결정 -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 조례로 제도화해야</p> <p style="text-align: center;"> 대구참여연대</p>	
<p>1.27 [성명] 도시브랜드를 시장 마음대로, 안 돼!, 시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해야</p>	<p>1.30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흥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p>
<p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p> <p style="text-align: center;">- 배 의원, 유령회사 내세워 다수의 수의계약 의혹, 지방계약법 등 위반 - 담당 공무원, 관련 사실 알고도 묵인,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 배 의원과 공무원은 진실 밝히고, 감사원은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진상조사하고 사태 방조한 책임져야</p> <p style="text-align: center;"> 대구참여연대</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흥준표 시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로 상향,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 물가인상, 실질소득 감소 등 민생고 이랑곳없는 복지 축소, 안될 말 - 절차적으로도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 소지도 있어 - 흥준표 발 나쁜 전국 최초 더 이상 안 돼, 즉각 철회해야</p> <p style="text-align: center;"> 대구참여연대</p>
<p>2.02 [보도자료]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p>	<p>2.9 [성명] 흥준표 시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로 상향,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p> <p style="text-align: center;">- 배 의원, 유령회사 내세워 다수의 수의계약 의혹, 지방계약법 등 위반 - 담당 공무원, 관련 사실 알고도 묵인,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 배 의원과 공무원은 진실 밝히고, 감사원은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진상조사하고 사태 방조한 책임져야</p> <p style="text-align: center;"> 대구참여연대</p>
<p>2.14 [토론회] 제2대구의료원 설립관련 정책토론회</p>	<p>2.20 [성명]배태숙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p>
	
<p>2.22 [기자회견] 흥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기자회견</p>	<p>2.23 [총회] 제 25차 대구참여연대 정기총회</p>



4.26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4.24 [기자회견] 포스코는 일본 전범기업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4.10 [기자회견] 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정책토론회청구 개악을 반대한다!



4.15 [홈커밍데이] 25주년 홈커밍데이 / 청년활동기금마련 회원장터



3.26 [회원걷기모임] 3월 걷기모임-동구 불로고분군과 봉무공원



3.23 [기자회견]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상향 조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성명]

대구 10대 응급 외상 환자 사망 사건에 부처

- 치료가능 응급사망률 전국 1위 대구시
- 응급 의료체계 근본적인 개선책 제시하고,
- 대구의료원 응급의료 역량 강화 및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즉각 나서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4.04 [성명] 대구 10대 응급외상 환자 사망 사건에 부처

[공동성명]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강제징용 합의안에 분노한다!

- 피해자 고통은 외면, 일본에는 면죄부, 굴욕 합의안 용납할 수 없다
- 사법 주권 포기, 식민 지배 정당화하는 친일적 해법, 즉각 철회하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대구참여연대/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3.06 [공동성명] 일본의 진정한 사죄 없는 강제징용 합의안에 분노한다!

[논평]

퀴어축제와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 (1)

'보복수사', 홍 시장의 주관적 억측이자 본질 왜곡하는 악의적 프레임


- 시정을 정치판으로 돌고 간 홍 시장과 측근들이 자초한 날부끄러운 상황
- 퀴어축제와 선거법 위반은 별개, 경찰은 최소한 할 일 하고 있을 뿐
- 취임 1주년 맞는 홍 시장, 본인부터 자성하고 퇴행과 복주 멈추어야

 대구참여연대

[성명]

경찰청은 홍준표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하라

- 대구시, 시장부터 공무원들까지 sns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유행
- 대구 시정이 온통 정치판,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선거운동본부인가
- 홍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이 시정의 공공성, 중립성, 공정성 무너뜨리려 해
- 대구경찰청,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기반 지켜야

 대구참여연대


6.26 [논평] 퀴어축제와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1)

6.16 [성명] 경찰청은 홍준표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엄정수사하라

[성명]

대구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으로 예산 절감, 채용비리 방지해야

- 대구 4개 기관 8억5천만원, 광주 23개 기관 약 3억원, 채용비용 차이 커
- 홍준표 시장, 채용비리 무리수 두면서 정착 예산 절감 정책은 도입시
- 대구시도 예산 절감채용비리 방지 등을 위해 통합채용제도 도입해야

 대구참여연대



6.15 [성명] 대구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으로 예산 절감, 채용비리 방지해야


6.08 [공동기자회견] '전세사기 강동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성명]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무용지물, 관행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 코로나19 유행 풀리자 지방의회 해외연수 붐, 그러나 위유성 연수 여전
- 연수 전후 책임을 규정한 조례도 있고, 심사기준도 있지만 무용지물
- 현행 제도라도 제대로 지키고, 조례 및 심사기준도 더 엄격하게 개정해야

 대구참여연대

6.07 [청년모임] 청년모임 준비모임 1차

6.05 [성명]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무용지물, 관행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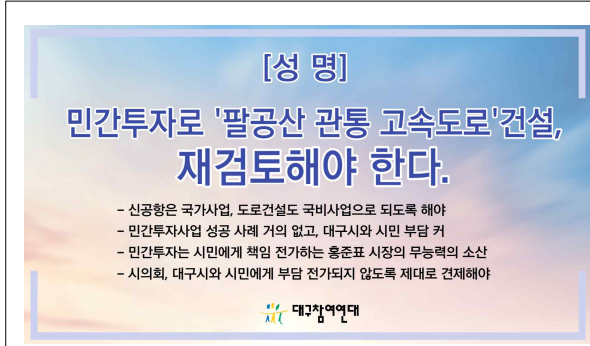
[공동성명]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5.30 [기자회견] 대구3대 습지 팔현습지 망가뜨리는 금호강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 반대한다

5.12 [공동성명]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도 건립공약폐기



8.31 [성명] 민간투자자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재검토해야한다



8.15 [연대행사] 815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반대 대구시민 걷기대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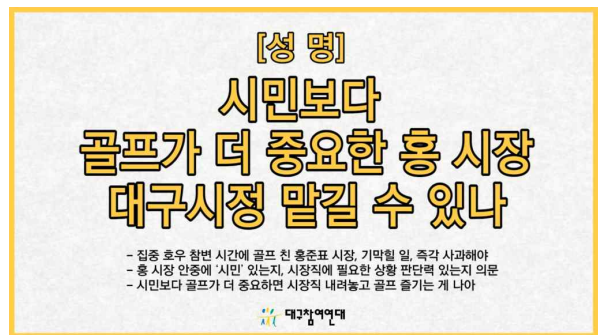
8.10 [고발장접수] 배태숙의원등 중구의원, 공무원 경찰에 고발



7.28-29 [회원캠프] 대구참여연대 하계캠프 영덕 옥계계곡



7.27 [기자회견] 중구의회 배태숙의원 의원직 사퇴 및 안재철의원 윤리특위위원장 사퇴 촉구



7.17 [성명]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흥시장, 대구시정 말할수 있나



7.18 [토론회] 일본시민운동가 초청 (나카가와 미유키)특별 강연회



7.01 [회원모임] 걷기모임-동구 팔현습지 걷기.



9. 7 [기자회견] 대구형 배달 플랫폼 ‘대구로’ 특혜 불법문제 설명회 및 고발 기자회견



9. 16 [회원조직사업] 운영위원 엠티- 청도



9. 20 [연대행사] 대구기후정의행진



10.12 [회의] 10월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10.23 [청년기획] 청년 정책 예산공부모임 1차



10. 6 [연대행사] 10월항쟁 77주기 가장 위령제 및 대구경북시도인대회 참석



10.20 [기자간담회] 대구시 기자에게 대구참여연대를 묻다



10.31 [공동기자회견] 국민은 아루타가 아니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보 즉각 개방하라!네트워크



11. 6 [연대행사] 간담회-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의미와 향후과제

[논평]

**홍준표 시장, 억지 부리지 말고,
언론 옥죄기 그만 멈추라.**

- 대구시, 비판 보도한 언론인들 경찰의 무형의 처분에도 검찰에 재수사 요청
- 애초부터 고소개고기 안 되는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갈등 유발하고 억지부려
- 홍 시장, 이제 그만 언론 탄압 멈추고 대화와 소통의 장 열어야

대구참여연대

11.10 [논평] 홍준표 시장, 억지 부리지 말고 언론 옥죄기 그만 멈추라

[공동성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11.13 [공동성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학살을 멈춰라



11.13 [연대행사] 전태일 53주기 기념식 및 전태일 시집 발간 출판기념회 참석



11.15 [연대기자회견] 전세사기 깡통전세 영남권 피해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11.15 [연대기자회견] 팔현습지 생태파괴 산책로 공사 조장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11.16 [회의] 11월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11.20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5차



12.29 [총무식] 2022년 총무식 및 공간7549 송년회

[성명]
거대양당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한다!

-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
- 보궐선거 귀책 사유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선거비용 책임져야
- 중구의회, 나머지 의원도 전원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재구성해야

대구참여연대

12.14 [성명] 거대양당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한다



12.20 [연대기자회견] 일본핵오염수방류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12.12 [연대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



12.08 [1인시위] 전세사기대책위 1인시위 참여

[성명]
중구의회, 의회 존립 이유 상실, 일괄 사퇴 재선출해야!

- 권경숙의원 제명, 최철 더 중한 배태숙의원 자진 사퇴 및 제명해야
- 중구의회 이미 총체적 파탄,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재구성해야

대구참여연대

11.28 [성명] 중구의회, 의회 존립이유상실, 일괄 사퇴 재선출해야!

[보도자료]
2024년 대구시 청년예산 대폭 삭감, 문제있다!

- 청년 일자리 393억원, 교육 29억원, 참여권리 16억원 등 400억원 감소
- 정부 주관 사업의 폐지 등 요인 있으나 대구시 자체 예산도 관성안 해
- 50년 미래역거리 창출 운운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현실 정책은 후퇴
- 대구시와 의회, 국회에 청년예산 회복 요구하고, 자체 대안예산 수립해야

대구참여연대 대구청년유니온

11.16 [회의] 11월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11.24 [모임] 전.현직임원,활동가 저녁 모임

[성명]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철면피 인사 규탄한다.

- 홍 시장, 고교 동기 노종기씨를 대구미술관장으로 임명
- 측근 챙기기 정실 인사, 공공기관 사유화 도 넘어
- 시민 눈초리 안중에 없는 철면피 인사 즉각 철회해야

 대구참여연대



1.3 [성명] 홍준표시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철면피 인사 규탄한다


1.25 [참여자치연대총회] 대구팔공산평산아카데미



[성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
- 국회 무시, 국민 거부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 국민이 거부할 것

 대구참여연대

1.29[연대기자회견] 제대로 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1.30 [성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1.30.[총선시민네트워크출범]시민의 힘으로 '다시한번, 기억약속심판'

2.2 [강연회] 국회의원이탄희 초청강연회

[21대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11명 발표]


 윤정탁 (국회의원/동남구)	 이승익 (국회의원/동구동)	 이재연 (국회의원/동구동)	 서흥 (국회의원/동구동)	 송선준 (국회의원/달서구동)	 김상연 (국회의원/서구)
 박기겸 (국회의원/동구동)	 손동익 (국회의원/동구동)	 박인재 (국회의원/서구동)	 조명희 (국회의원/동구동)	 주성우 (국회의원/달서구동)	

 대구참여연대

[성명]

의사들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거부 중단하라

- 국민 76% 의대 정원 확대 찬성, 국민 생명 담보한 진료거부 즉각 철회해야
- 의료인들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면 노동조건 개선, 의료인력 확충 요구해야
-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급조 정책도 문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대책 발표해야

 대구참여연대

2.15[보도자료] 21대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11명 발표

2.20 [성명] 의사들은 정당성없는 집단 진료거부 중단하라

2023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3년 대구참여연대 회원 설문조사 결과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2월 28일 제26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이 대구참여연대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2월 2주간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 55명의 회원이 응답해 주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2023년 가장 잘한 활동은 ‘**홍준표 시장 고발, 감사청구 등 대구 시정의 퇴행과 폭주 견제 활동**’
- 대체로 긍정 평가, 부정 평가가 가장 많았던 것은 ‘**시민과 회원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 대구사회에 영향력 다소 있지만 ‘**언론보도가 적거나**’, ‘**활동자체가 활발하지 않아서**’ 제한적
- **주요임원과 상근활동가의 정당가입과 선거출마 금지 지속** 하되, 후보 지지 선언 등 부분적 유연성도 필요
- **정부지원 받지 않고, 기업 후원에 의존하지 않은 재정 방침도 유효**, 그러나 부분적 유연성도 필요
- 가장 큰 문제점은 ‘**회원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의 참여 부족**’ 및 ‘**상근활동가 총원과 활동 재정 부족**’
-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것은 ‘**강연,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과 ‘**회원 동호회 모임**’
- 가장 필요한 모임은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공동체 활동**’, ‘**작은권리찾기**’ 관련 모임
- ‘**홍준표는 2점, 윤석열은 1점**’ 10점 만점 기준 회원평가는…
- 가장 주력해야 할 활동 방향은 역시 ‘**시의정 권력감시**’와 ‘**풀뿌리자치 및 청년세대 조직화 등 시민역량 강화**’
- 가장 집중해야 할 대구사회의 문제는 ‘**넓고 부패한 정치행정**’과 ‘**빈곤, 실업, 노후 등 사회안전망 부실**’

1. 대구참여연대 2023년 활동 중 가장 잘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선택)



- 2023년 가장 잘한 활동은 ‘홍준표 시장의 독주견제(41건)’로 집계됨(74.5%)
- 다음으로 높은 결과는 지방의회 의정감시 29건(52.7%), 대구시 시정감시 26건 (47,3%) 순으로 나타남

2. 대구참여연대의 2023년 활동 중 어렵거나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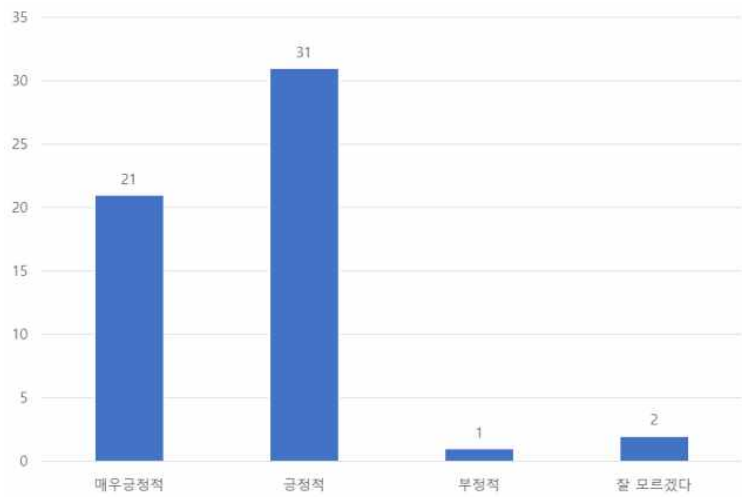
- 주로 홍보 부족, 시정 및 의정 감시 미흡, 회원 참여 저조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음

회원/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모임, 후원금 모금 등에서 갈수록 회원 참여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 재정 독립이 늘 걱정/부족한 활동가 인원과 그에 따른 업무 가중.../신규회원 유입 전략 필요 - 회원모임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마을별 회원모임이 필요해요. - 신규회원을 유입할 전략이 필요해요.
-------	--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홍보/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과 시민에게 눈에 띄는 활동이 생각나지 않아요. - 언론에 노출이 많지 않네요.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부족해요. 활동 방향성과 내용을 알리고 공감대 만들어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이지 않음/집중성과 전문성 필요 -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너무 치중... . -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폐지 문제,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등 종교 갈등에 소극적 - 시정 감시, 예산 낭비, 시민 알권리 문제 적극적 활동 필요 - 늘어나는 아파트 숲 답답...적극적 대응 필요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정부 실정 강력 대응해야 - 시국상황 반영 대중강연이나 시민강좌가 없어서.../좀 더 큰 정치적 퍼포먼스 필요 - 특정 정당만 비난하는 편향 심화/ 정치적 중립 지켜야

3. 대구참여연대의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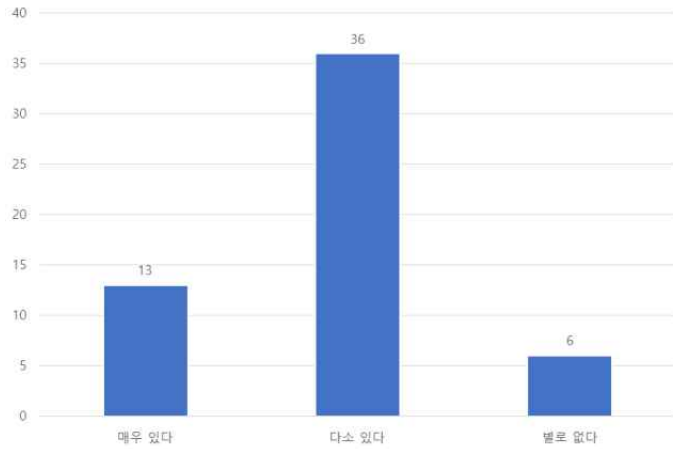
- 대체로 대구참여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
- 긍정적 56.4%(31건), 매우 긍정적 38.2%(21건)

3-1. 부정적이라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부정적 평가에 가장 큰 이유는 ‘시민과 회원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로 82.4% 응답(14건)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마을, 사업장 등 현장 및 당사자들과의 연대가 부족해서’ 47.1% (8건),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29.4%(5건)

4.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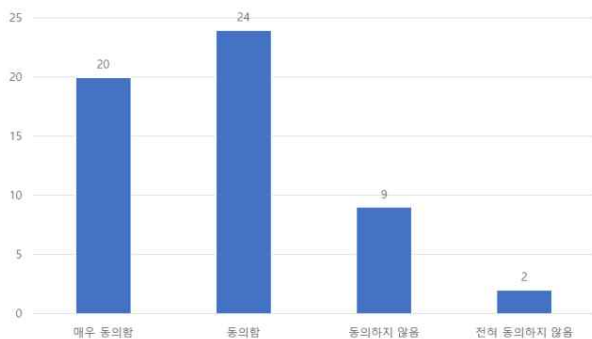
- 응답자 65.5%는 대구참여연대의 영향력이 ‘다소 있다’ 로 평가
- 응답자 23.6%는 ‘매우 있다’ 로 평가했으며, 별로 없다는 응답은 10.9%

4-1. 대구참여연대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선택)



-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아서’ 56.3% (9건)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대구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가 37.5% (6건)
- 대체로 언론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활동 저조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5. 대구참여연대는 ‘주요임원’ 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각 부서의 장 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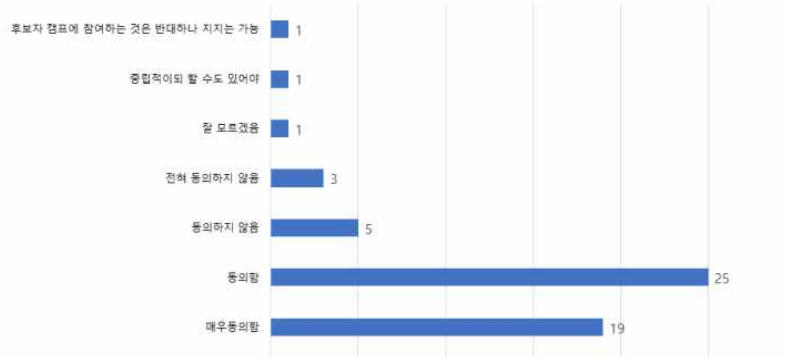
- 정당가입 금지에 대해 동의함 43.6% (24건), 매우 동의함 36.4% (20건)으로 대부분 정당 가입 금지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16.4% (9건), 전혀 동의하지 않음 3.6% (2건) 등 약 20%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5-1. 위 질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함(5건)
- 정치적 의사 표현은 기본권이며 당직은 어렵더라도 가입은 가능하게 해야 한다(4건)
-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과 공동대표만 정당 가입 금지 의견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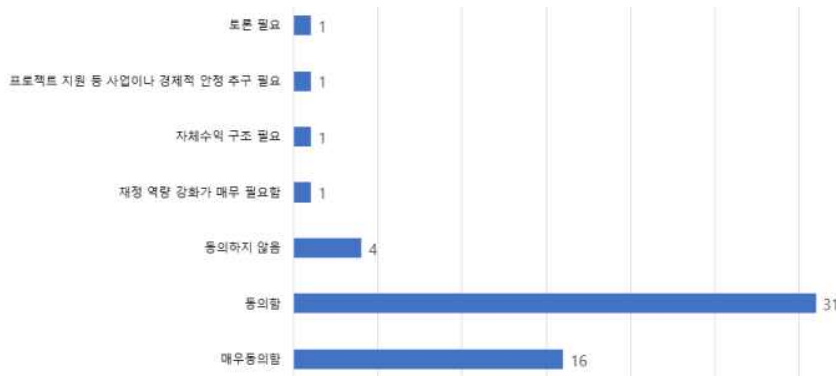
6. 대구참여연대 주요임원과 상근자는 참여연대 직책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이나 정당 및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응답자 45.5% (25명) 동의, 34.5% (19명) 매우 동의로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의하지 않음 9.1% (5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 5.5%(3명) 등 약 14.6%는 동의하지 않음

7.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의 후원금(개인 후원금과 회지 광고비 제외)도 거의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 56.4% (31명) 동의, 29.1% (16명) 매우 동의로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동의하지 않음 7.3% (4명)이며 이외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건씩 있음

7-1. 위 질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재정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상근자의 희생이 크다. 자립 자활을 위해서 전향적 변화를 고민하기 바람
재정자립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어 보임
어떻게든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정책 중심으로 협업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 지원도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공익활동 모금회 같은 조직에서 받으면 좋겠음.
재정 원칙은 동의. 좋은 사회와 더 많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회원확보, 회원교육에 참신함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심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는 참여를 진행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원금 이외 재정마련 필요.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자체사업 필요 후원으로는 한계가 분명
나의 행복도 지켜야 사회적 행복도 지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 뒷받침은 꼭 필요. 정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

8. 대구참여연대의 활동 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3개 선택)



-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문자메세지로 89.1% (49건) 응답
- 다음으로 높은 매체는 뉴스레터 50.9% (28건), 회지 21건 (38.2%)
-

9. 대구참여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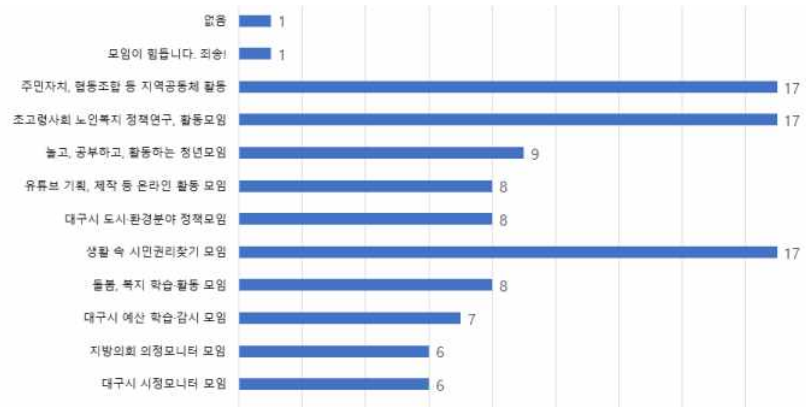


- 가장 높은 응답은 회원의 고령화, 청년세대의 참여 부족 69.1% (38건)
-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상근활동가 충원 및 활동을 위한 재정 여력의 부족 58.2% (32건), 회원, 시민과의 소통 및 홍보 부족 23.6% (13건)

10. 아래의 활동 중 회원님께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가장 높은 응답은 50.9% (28건) 강좌, 포럼, 토론회 등 교육프로그램 참여
- 다음으로 온라인 활동 45.5% (25건), 회원모임(동호회) 활동(걷기, 답사, 여행 등) 27.3% (15건)
- 가장 낮은 응답은 '위원회나 센터 등 활동기구 회의 참여' 로 23.6%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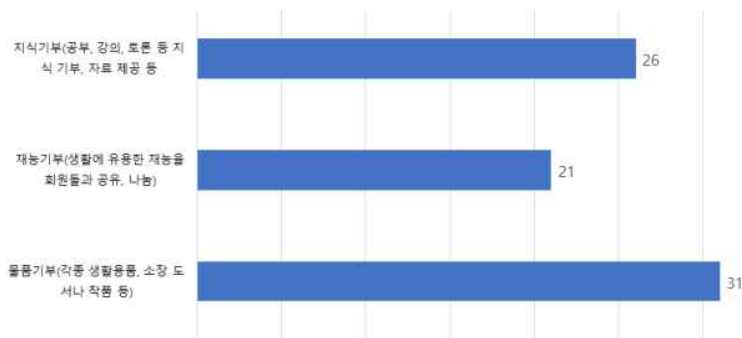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11. 대구참여연대에 아래와 같은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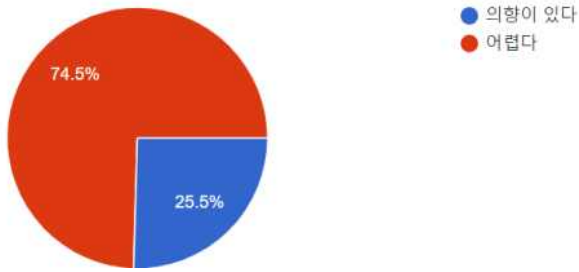
- 가장 높은 응답은 ‘생활 속 시민권리찾기 모임’,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연구, 활동모임’, ‘주민자치,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활동’ 으로 각각 30.9% (17건) 응답

12. 대구참여연대를 위해 아래의 기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 기부할 의향 응답은 총 55건으로, 물품기부 56.4% (31건), 지식기부 47.3% (26건), 재능기부 38.2% (21건) 순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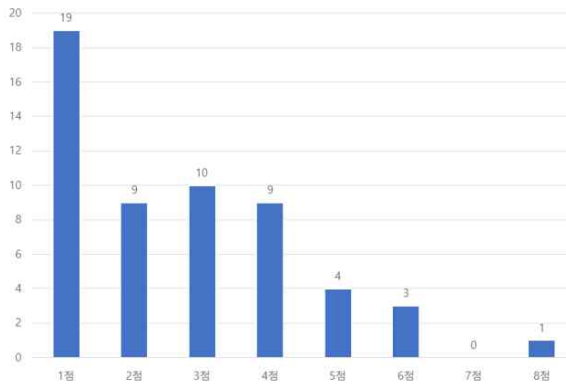
13. 대구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가 부족합니다. 자원활동(월1회, 평일, 만나절 이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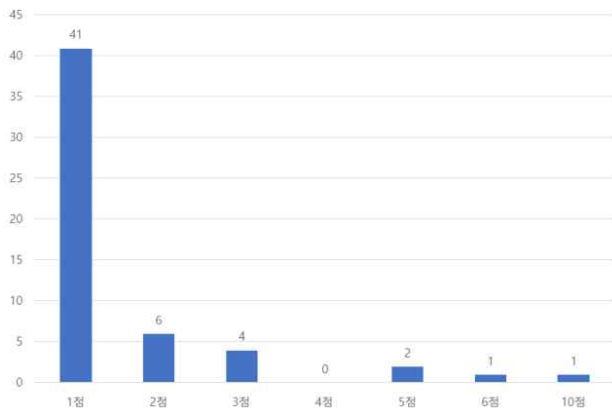
- 자원활동은 74.5% (41명) ‘어렵다’ 로 응답, ‘의향있음’ 은 25.5% (14명)으로 자원활동은 대체로 어려워함

14. 흥준표 시정평가 점수를 매겨주세요

- 34.5% (19명)가 흥준표 시정평가에 1점을 주었음
- 2점 16.4% (9명), 3점 18.2% (10명), 4점 16.4% (9명)으로 흥 시장 시정평가에 대체로 낮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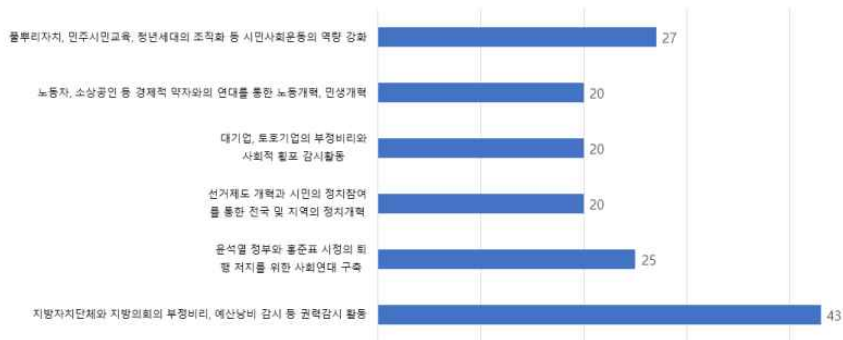
14-1. 윤석열 국정평가 점수를 매겨주세요



- 윤석열 국정평가는 1점에 74.5% (41명) 응답함
- 2점 10.9% (6명), 3점 7.3% (4명)으로 흥준표 시정평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가 매겨짐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15. 대구 변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개 선택)



- 가장 많은 응답은 78.2% (43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부정비리, 예산낭비 감시 등 권력감시 활동
- 다음 높은 응답은 풀뿌리자치, 민주시민교육, 청년세대의 조직화 등 시민사회운동의 역량 강화 49.1% (27명),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정의 퇴행 저지를 위한 사회연대 구축 45.5% (25명)

16. 대구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대구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선택)



- 가장 많은 응답은 69.1% (38명) 낮고 부패하고 퇴행하는 정치와 행정
-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부족 45.5% (25명), 청년 유출과 지역대학의 위기 41.8% (23명)

17.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균형적인 사고와 공정한 비판
힘들지만 저변확대에 좀 더 힘을 써야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서민의 스펙트럼은 넓다. 진보와 보수, 노령자와 청소년과 청년, 여성 등 기존 약자 중심의 접근이 시민 전체의 목소리로 보기에는 협소하고, 이를 통한 참여연대의 활동 또한 편향적인 모양새를 넘지 못하여 합리적 대안으로 접근함에도 한계가 있어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연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광장을 열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말할 수 있게 함을 제안해본다.
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참여연대에 감사드린다.
선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음
존재만으로 감사드린다.
회원의 확대
대구참여연대, 1990년대 중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자그마한 공간을 열고 시대를 바꾸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름다웠던 그 청년들이 이제 초로의 장년이 되었다.

<p>내 앞가림하기에도 벅찬 우리나라에서 이웃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정치를 위해 오늘도 남 모르는 피와 땀을 흘리고 계시는 활동가 여러분을 응원한다.</p>
<p>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타 단체와 협력하여 전세 사기, 환경 오염 등 큰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다뤄 달라</p>
<p>공동체 의식의 시민연대가 중요한데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p>
<p>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업과 홍보가 필요</p>
<p>시대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부탁드립니다.</p>
<p>새해에는 올해보다 좀 더 힘 받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응원한다.</p>

2023년 활동보고 및 평가

총괄 평가

사업보고 및 평가

조직보고 및 평가

결산보고 및 평가

2023년 총괄 평가

홍준표 시장의 퇴행과 독주를 강력하게 비판, 견제하였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기대했던 정책들이 무산되고, 시장은 기업화, 사유화의 길로 치달으며, 퇴행과 독주가 횡행하여 이를 비판, 견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①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사유화, 정치홍보 매체로 전락시킨 문제를 비판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이끌었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이 유력합니다.
- ② 쿼어축제 집회 방해 및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 반인권, 권위주의 행정을 강력하게 견제하였습니다.
- ③ 위법 부당한 특혜인사, 측근 정실인사를 비판하고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24 상반기 감사실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④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였으며, 대구로 운영업체에 대한 특혜와 대구로페이 실물카드 사용을 금지 등 중소기업, 노동자, 노인 등 민생정책 후퇴를 비판. 검찰 고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등. 기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정책 퇴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과거 회귀, 부정 비리, 무능력을 비판, 견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여야의 균형이 무너지고,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의회는 과거로 회귀, 부정비리를 일삼고 집행부 견제력이 상실되고 있어 이를 비판, 견제하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 ①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 퇴행적 조례와 예산들을 무기력하게 통과시킨 대구시의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시민행동을 하였습니다. 의회 앞 기자회견, 피켓팅, 방청 및 1년 평가보고서 발표 등.
- ② 중구의회 등 지방의원들의 불법 수의계약과 공직자이해충돌 실태 발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의원직 박탈, 중징계를 견인하였습니다.
- ③ 낭비성 해외연수, 출석정지 중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 등 무너진 의정윤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혁을 촉구. 일부 의회에서 해외연수 조례와 출석정지 시 급여지급 제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비판하고, 시민연대 행동에 앞장섰습니다.

- ❶ 일제 강제징용 문제 제3자변제 합의안을 규탄하는 시민행동, 시민연대를 선도하였습니다.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회원 현수막 수십장으로 게시하고, 포스코 규탄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주도하였으며,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에도 연대하는 등 회원,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하였습니다.
- ❷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 반대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대구경북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1인 시위 참여, 제 정당 공동 시민대회 개최 등으로 연대하였습니다.
- 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발표하여, 회원 및 시민의 공분을 대변하였습니다.

반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 ❶ 홍준표 시장의 퇴행과 폭주를 견제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제도와 예산을 개혁하는 활동이 부족하였습니다.
- ❷ 지방의회 감시 활동 역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비판, 고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진보적 전문가와 개혁적 의원 등 안팎의 역량과 연대하여 대안을 제시,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활동이 부족하였습니다.
- ❸ 회원, 시민과 함께하는 과정, 수단도 부족했습니다. 고발, 감사청구 등도 회원, 시민의 연명과 참여의 기획, 과정이 있었으면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사무처 위주의 단순한 방식을 반복한 점이 있습니다.
- ❹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실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공분에 비례하는 적극적 행동과 연대, 회원,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도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3년 조직보고 및 평가

1 회원/회비

○ 회원수(2023.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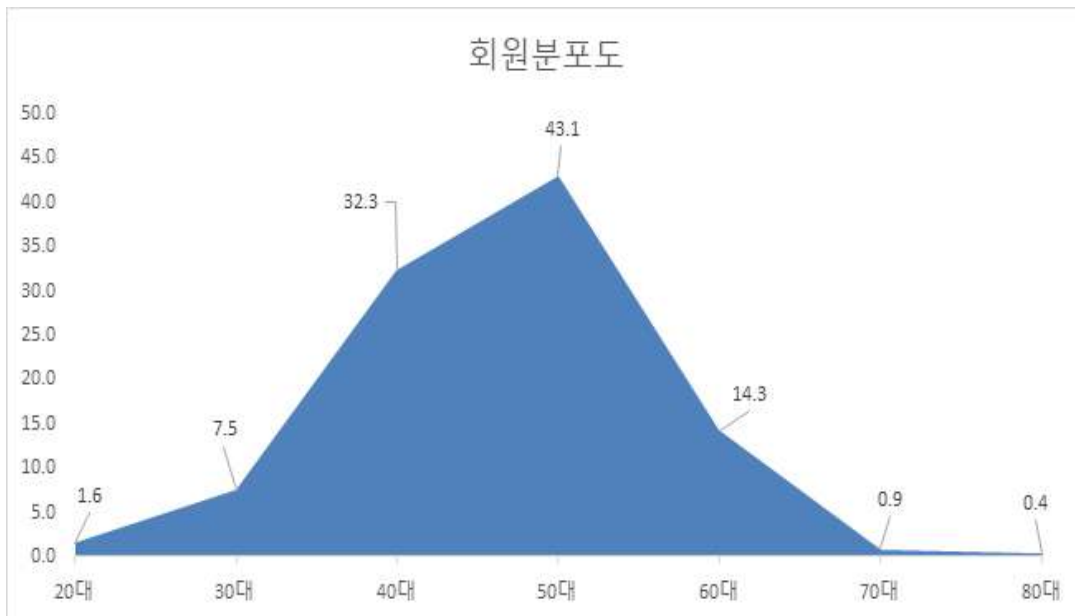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13	1051	1005명	1003명	995명

○ 회비현황(월평균 회비납부수/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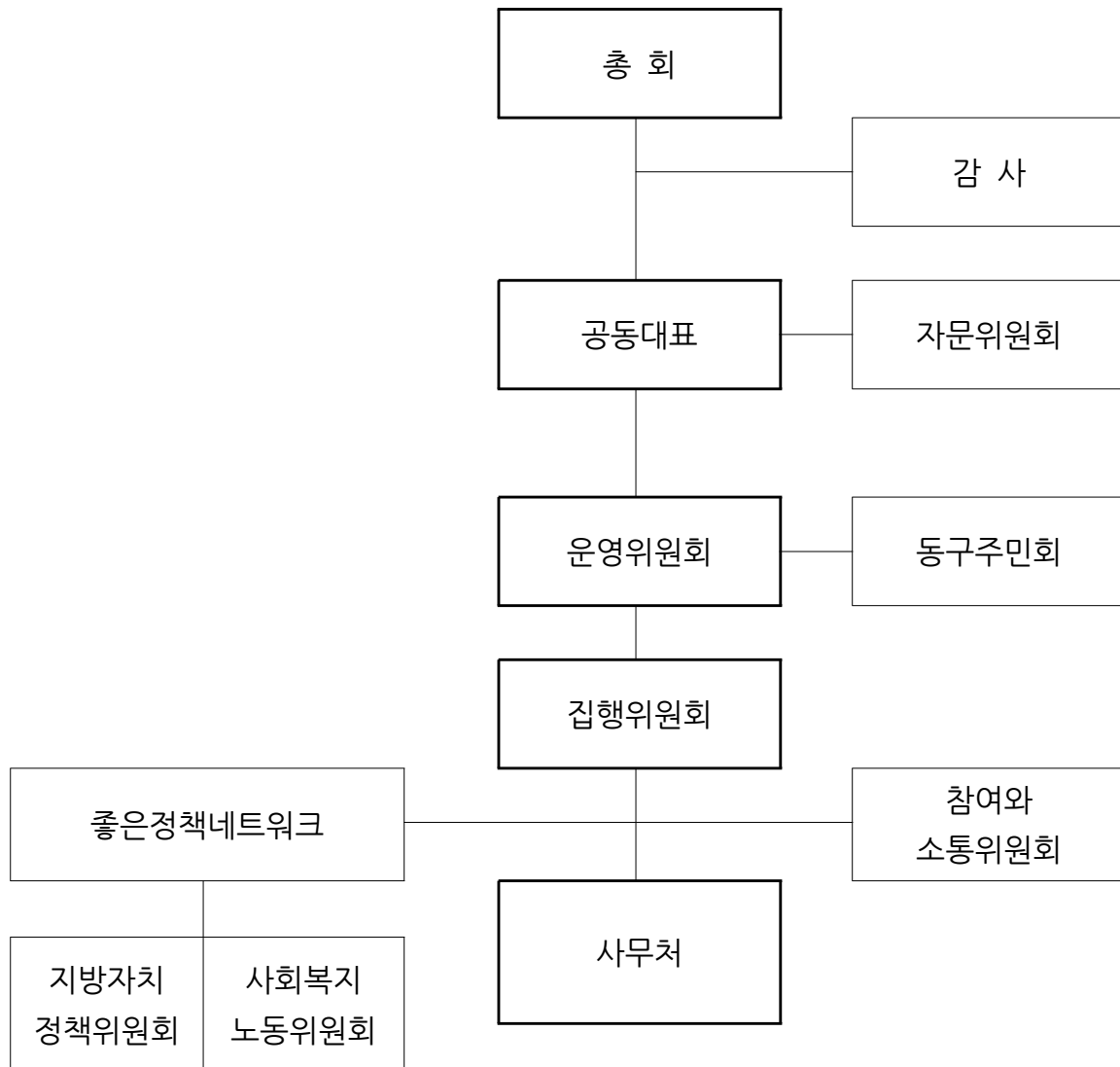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73(826만원/64%)	578(793만원/58%)	559(780만원/55%)	524(786만/54%)	534건(800만/54%)

※ 2023년 해지회원 27명, 신규가입 37명 (재가입포함)

○ 회원구성



2] 조직과 일하는 사람들



[1] 자문위원회

- ▶ 김민남 김윤상 김주태 김영화 백승대 법광 원유술 이성희 장영목 최봉태 오규섭 이두옥
- ▶ 년 1~ 2회 전·현직 임원모임

[2] 공동대표단

- ▶ 박경로 엄창옥 정혜숙 이두옥
- ▶ 운영위원회, 주요 행사, 주요 기자회견 등 참여

[3] 운영위원회

- ▶ 위원장 류영준/ 부위원장 정희선 이종득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 김보영 양희 김주욱 김채원 김형진 도경화 문창식 박근식 서상민 백경록 윤지현 이승연 최미나 한경국
- ▶ 년간 8~ 9회(총준위 포함) 개최, 참석율 30~40%

[4] 집행위원회

- ▶ 김보영(위원장 권한대행) 김형진 박근식 문용우 한상훈
- ▶ 대면회의 참석율과 집행력 부족

[5] 좋은정책네트워크

- ▶ 김보영(위원장/사회복지) 이소영(부위원장/지방자치정책) 이원준(부위원장/노동사회)
- ▶ 강우진 고한용 김동은 김언호 김영숙 김정화 문용우 박경순 박근식 박정민 백경록 이주영 장지혁 최병우 한경국
- ▶ 대면 회의 및 직접 주최 활동 부진

[6] 참여와소통위원회

- ▶ 김형진(위원장)
- ▶ 필진: 사진(정용태), 문화(김병호), 노동(정은정→ 최윤영, 조기현), 칼럼(김윤상), 시사(채장수 → 모-D)
- ▶ 위원회 회의체계 미구성

[7] 사무처

- ▶ 강금수(사무처장) 김선희(사무국장) 조영태(정책간사)

- 급격한 변동은 없으나 운영기구와 활동기구의 참여율, 활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 새로운 인력이 들어 오고 활동할 구조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 구심력 약화, 원심력 강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활동 보고 및 약평

1️⃣ 흥준표 시장의 퇴행 · 폭주 견제 활동

<p>❶ 대구시 유튜브 문제</p>	<p>- 유튜브 분석, 비판 - 시의회에 시정 청원 -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경찰 누장 수사 비판</p>	<p>- 시청 압수수색 - 이후 7개월째 처리 지연</p>
<p>❷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문제</p>	<p>- 평일 변경 반대 성명, 기자회견 등 - 직권남용 검찰 고발 - 변경 효과 왜곡, 과장 비판</p>	<p>- 무혐의 종결</p>
<p>❸ 대구로 및 대구로페이 문제</p>	<p>- 불법·특혜 비판 - 업무상배임 고발 및 대구시 역고발 - 대구로페이 사용 불편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p>	<p>- 검찰 수사 중 - 권익위 무혐의 종결</p>
<p>❹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p>	<p>- 반대 성명, 기자회견 - 의회 방청, 피켓시 위 - 노인복지법 위반 확인소송 추진</p>	<p>- 소송원고모집 중단</p>
<p>❺ 쿼어축제 집회방해 문제</p>	<p>- 반인권 행정, 경찰 공무집행 방해 비판 - 공무집행방해 검찰 고발, 수사 진행 중</p>	<p>- 축제조직원, 명예훼손 등 국가배상청구 진행 중 - 축제조직원, 집회방해죄 추가 고발</p>
<p>❻ 인사권 남용</p>	<p>- 비판 성명 및 감사원 감사청구 - 감사원 직무해태 비판 성명</p>	<p>- 감사원 7개월째 감사여부 미확정</p>

- 흥준표 시장의 퇴행과 폭주 강력 비판, 고발과 감사청구 등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권력을 감시하는 대표적 단체로써의 존재감,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의 지지와 응원이 늘었음.
- 그러나 활동 과정에 회원, 시민이 참여하는 기획, 수단의 부족으로 주목을 받은 만큼의 영향력과 조직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함. 이 점에서 도시철도무임승차 연령상향 반대 시민소송 중단 등은 아쉬운 지점.
(※시내버스 무임승차 시행으로 반대 여론 상계, 보건복지부 자치사무로 판단, 조례 시행 후 피해 발생 시 소송하자는 의견, 저소득층 노인 교통복지 확충 등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 등의 의견으로 중단)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우리 활동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지지와 응원, 조직 성과를 확장하는 기획이 필요. 시민고발, 시민청원, 시민소송 등 시민참여 기획, 유튜브 개설, 네이버 해피빈 모금 등.

② 지방의회 불법·비리 규탄 시민감시

<p>① 해외연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무용지물 비판, 조례개정 촉구 - 서구의회 등 관광성 연수 비판 - 수성구의회심의위원회 참가, 사전 학습 등 개선 	
<p>② 거수기 시의회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정책토론회구조례 개악 비판 - 1년 평가, 시정 견제력 상실, 거수기 자초 비판 	
<p>③ 불법 수의계약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의회 배태숙 의원, 불법수의계약 감사원 감사 청구 - 감사결과 사실 확인, 배태숙 및 담당 공무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고발 - 권경숙 의원과 아들 불법 수의계약 비판, 윤리위 징계 촉구 - 비리의원 비호, 의장 비판 및 안재철 윤리위원장 사퇴 촉구 - 불법계약 실태 조사, 대구시 전면감사 촉구 - 중부경찰서, 고발 사건 수사 지연 규탄 - 보궐선거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촉구, 중구의회 일괄 사퇴 촉구 -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미지급 및 환수 조례 제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서, 5개월째 수사결과 지연 - 권경숙,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본안소송 진행 중

- 중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 선도적 감시 운동으로 대의회 정치적 위상, 영향력을 높였음
- 시의회 1년 평가로 시의회의 무기력을 비판한 것은 의미가 있었으나 주요 의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음. 사무처 중심의 현안 대응 외 좋은정책네트워크의 기획 정책활동이 부진하였음
- 정책기구, 활동기구를 정비하여 특정 의회나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 의회 전반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협력 가능한 지방의원과 연대하여 정책(조례, 예산)을 제안, 공론 형성, 제도화하는 활동이 필요함

③ 청년모임 및 청년예산 정책활동

준비모임	두 차례 준비모임 및 운영위원 친교 간담회 1회 개최
예산공부모임	10~ 11월 5강좌 개최

청년예산감시	11월, 2024 대구시 청년예산 분석, 대폭 삭감 비판
--------	---------------------------------

- 청년기금 마련, 청년그룹 초동모임, 예산 강좌와 청년예산 분석 등 청년활동 초동기반을 만들었음. 그러나 상근활동가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상태로 방향 설정, 능동적 활동을 할 기반은 부족함
- ‘선배 세대의 응원’ 수준을 넘어, 대구참여연대 운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 우선은 일단은 참여의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유의미한 기획이 필요.

4 윤석열 정부 퇴행·실정 규탄 활동

○ 연대활동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강제징용 합의안 굴욕외교 규탄 교수·연구자 연대 회견 [공동성명] 일본의 진정한 사죄 없는 강제징용 합의안에 분노한다! [공동기자회견] 친일매국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동맹 반대 [기자회견] 포스코는 일본 전범기업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기자회견]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경북지사, 도의회 결의문 채택 촉구 [연대집회] 핵오염수 방류 반대 대구시민 걷기대회 [기자회견]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연대시위]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 독자활동

1.17	[성명] ‘왜교부’인가 ‘외교부’인가, 일본강제동원 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5.03	[성명] 건설노조조합원의 분신사망 윤석열정부 노조탄압 규탄
7.18	[강연회] 강제징용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시민운동가 초청 강연
11.29	[성명] 거대양당은 망국적 선거법을 지금 당장 개혁하라
12.07	[성명]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 기존의 관행적 연대기구를 벗어난 연대활동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음. 교수연구자연대회의 공동 시국 기자회견, 경북 시민단체들 공동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 야5당 공동 일본 오염수 규탄 대회 등
-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퇴행에 대한 공분이 높아졌으나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조급한 심판, 퇴진 운동과 거리를 두고, 관행적 연대를 벗어나 새로운 주체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교수연구자연대회의 등)와 방식(포스코 제3자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경북 단체들과 연대)의 관계 형성 등은 적절하였으나 회원, 시민과 함께하는 독자적 기획과 실천은 미흡하였음. 이 점에서 포스코 상대 시민소송 중단도 아쉬운 지점.

수 연대활동

전국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 촉구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병립형 회귀 시도 규탄!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역이슈 연대	[기자회견] 귀어축제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귀어축제조직위) 공공배달앱 대구로 불법·특혜 고발(대구경실련) 대구로페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대구경실련) 중구의회 배태숙 등 이해충돌 경찰 고발(대구경실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공동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 망언 규탄한다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전국연대] 회원단체 일괄 참여 정치개혁시민행동/이태원참사대책위/전세사기대책위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토론회] 시민정책토론청구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 토론 [성명] 대구 10대 응급외상 환자 사망 사건에 부처 [성명] 윤석열정부 울산의료원도 건립 공약 폐기 규탄 [토론회] 지역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울산의료원 설립 운동 20년, 제2 대구의료원 운동 모색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	[기자회견]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 대구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영남권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전국대책위 대구 집회 참여 [1인시위] 전세사기대특별법 촉구 릴레이 1인시위(국민의힘)
환경이슈	[기자회견] 세계야생동식물의 날, 금호강 야생동물 샴터 지키기 [기자회견] 팔현습지 망가뜨리는 산책로 공사 반대한다. [기자회견] 금호강 팔현습지 영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 [연대집회] 대구기후정의행진 [기자회견] 안전한 수돗물 보장, 낙동강보 즉각 개방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공공의료 정책 후퇴 국면에서 무리한 대외 활동을 줄이고, 운동 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이었으나 시민서명을 통한 시민정책토론청구의 별다른 활동이 없었음. 총선 후 변화되는 정세에 활동과제를 구체화해야 함
- 전세사기는 중대한 민생현안이었으나 소극적 참여에 그침. 좀더 주도적 역할과 당사자 연대의 적극성이 필요함. 환경이슈 연대는 적절히 참여하였으나 취수원 안동

- 담 이전 문제 등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음
- 관행적 단체연대를 벗어나 이슈별 연관단체와 효율적 연대를 도모함. 그러나 단체 간 연대의 주도력은 여전히 약하고, 연대질서를 재편, 연대운동의 변화를 주도할 정도는 아님. 당사자, 기층 대중과의 연대, 전문가 그룹과의 정책적 결합은 여전히 부족함

속 회원소통 · 회원참여

회지 '함께꾸는 꿈'	- 년 6회 발행 - 광고 유치: 대구은행(6회), 대구대(1회), 대성에너지(1회)
온라인 소통	- 뉴스레터 발행(11회) - 페이스북 운영: 성명서, 행사 홍보 위주
재정사업	- 설맞이 수익사업: 여만원 - 창립기념 회원장터: 여만원/ 청년활동기금 여만원 조성
회원사업	- 정기총회: 60여명 참석 - 창립기념 홈커밍데이: 회원 물품기부, 뿌리회원 감사장 전달 - 여름 회원캠프: 20여명 - 회원 걷기모임: 4회, 평균 10여명 - 전·현직 활동가·임원 모임: 20여명 참석 - 회원설문조사: 55명 응답

- 주간 문자, 격월 회지, 월간 뉴스레터, 연간 설문조사 등 기본 방식은 안정화되었으나, 매체의 가독성이 낮고 참여를 유인할 기획은 부족하였음.
 - 홈페이지의 가독성, SNS 다변화와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 함
 - 유튜브는 시민 소통 수단으로 중요성하므로 예산을 쓰더라도 해야 함
 - 회지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슈, 코너를 운영하도록 필진을 넓혀야 함
- 코로나 이후 3년만의 대면총회였으나 참석이 많지 않았음(60여명), 참석율을 높이고 딱딱한 진행을 탈피, 조직 기운을 높이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함
- 회원장터가 회원참여와 재정마련의 장으로 의미가 있었으나 참여규모가 적었음.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공간과 운영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
- 후원금 모금캠페인은 전년도에 비해 총금액은 줄었으나 민생고충, 정세변화 등을 고려하면 현상은 유지하였음. 회원 확장이 부진, 기존 방식 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함
- 참여와소통위원회는 회원참여·시민소통을 기획, 실행하도록 체계와 역할을 정비해야 함. 횟수보다 내용과 참여율에서 만족도와 조직 성과를 도모해야 함
 - 대중적 이슈는 신속하게 포착하여 다수가 참여하여 기운을 높이는 장으로
 - 소모임은 회원 전문가의 재능을 공유하고 상호간 만족도를 높이는 장으로
 - 기획 프로그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적 충실도와 참여도를 높여 인적·물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함. 회원장터, 시민학교, 모금캠페인 등.

2023 결산보고 및 평가

1. 2023년 재정 현황

① 자산

(단위: 원)

과목	구분	2022년(12.31)	2023년(12.31)	전년대비증감액	전년대비증감율%
현금	현금및현금등가물	-	-	-	-
	현금(보통예금)	19,807,792	22,192,191	2,384,399	
	현금합계	19,807,792	22,192,191	2,384,399	1.12%
예금	청년활동기금	-	831,957	831,957	
	나눔과희망기금	26	26	-	
	퇴직적립금	6,805	6,805	-	
	튼튼기금	38	38	-	
	예금합계	6,869	838,826	831,957	0
보증금	기타유형자산(보증금)	-	-	-	
	전세보증금(대구)	30,000,000	30,000,000	-	
	보증금합계	30,000,000	30,000,000	-	0
자 산 총 계		49,814,661	53,031,017	3,216,356	1%

② 부채 및 순자산

(단위: 원)

과목	구분	2022년(12.31)	2023년(12.31)	전년대비증감액	전년대비증감율%
미지급금	예수금	96,840	773,420	676,460	
	미지급급여	-	-	-	
	미지급비용	123,860	149,440	25,580	
	미지급퇴직금	35,513,935	42,861,875	7,347,940	43.5%
	미지급금 소계	35,734,635	43,784,735	8,049,980	44.4%
차입금	단기차입금	-	15,000,000	15,000,000	
	장기차입금	8,962,980	2,251,969	-6,711,011	-42.6
	차입금 소계	8,962,980	17,251,969	8,288,989	-42.6%
	퇴직급여충당금	-	-	-	
	사업가수금	-	-	-	
[부 채 합 계]		44,697,615	61,036,704	16,338,969	10.8%
[순 자 산]		5,117,046	-8,005,687	-13,122,613	-78.8%
[순자산 증감]			-13,122,613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64,441,587	53,031,017	3,216,356	-22.7%

2. 수입

(단위: 원)

항	목	2022(12.31)	2023(12.31)	비율(%)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9,011,000	7,318,000	4.8	(1,693,000)	(18.8)
	CMS회비	83,805,000	85,802,000	56.3	1,997,000	2.4
	연회비	200,000	100,000	0.1	(1,000,000)	(50.0)
	평생회비	-	-			
	소 계	93,016,000	93,220,000	61.2	204,000	0.2
후원금 수입	일반후원금	7,870,000	3,060,000	2.0	(4,810,000)	(61.1)
	청년활동후원금		5,991,000	3.9	5,991,000	
	후원행사	30,280,000	29,150,000	19.1	(1,130,000)	(3.7)
	소 계	38,150,000	38,201,000	25.1	51,000	0.1
기타수입	광고수입	8,000,000	9,000,000	5.9	1,000,000	12.5
	이자수입	1,612	1,096	0.0	(516)	(32.0)
	해피빈수입	-	304,400	0.2		
	기타수입	19,093,900	4,330,460	2.8	(14,763,440)	(77.3)
	소 계	27,095,512	13,635,959	8.9	(13,459,556)	(49.7)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1,425,010	3,350,000	2.2	1,924,990	135.1
	명절수익사업수익	258,000	3,365,000	2.2	3,107,000	
	일상수익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하계캠프수입	1,460,000	600,000	0.4	(860,000)	
소 계	3,143,010	7,315,000	4.8	4,171,990	132.7	
기타 잡수입	잡이익		59,870	0.0	59,870	
	소 계		59,870	0.0	59,870	
총 계		161,404,522	152,431,826	100%	(8,972,696)	(5.6)

3. 지출

(단위: 원)

항 목	2022(12.31)	2023(12.31)	비율(%)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률(%)	
인건비	급여	96,539,875	90,380,880	54.6	(6,158,995)	(6.4)
	사회보험료	19,276,290	10,493,870	6.3	(8,782,420)	(45.6)
	상여금	4,400,000	3,600,000	2.2	(800,000)	(18.2)
	퇴직급여	10,764,550	7,347,820	4.4	(3,416,730)	(31.7)
	소 계	130,980,715	111,822,570	67.5	(19,158,145)	(14.6)
일반 관리비	지급이자	125,667	58,921	0.0	(66,747)	(53.1)
	사무실임차료	9,600,000	9,600,000	5.8	0	0.0
	정보통신비	1,632,278	2,147,297	1.3	515,019	31.6
	사무용품비	534,460	421,820	0.3	(112,640)	(21.1)
	소모품비	287,470	264,740	0.2	(22,730)	(7.9)
	도서구입비	716,000	648,000	0.4	(68,000)	(9.5)
	지급수수료	930,690	939,401	0.6	8,711	0.9
	수도광열비	1,264,920	1,402,580	0.8	137,660	10.9
	기타경비,세금	1,178,780	1,060,030	0.6	(118,750)	(10.1)
	소 계	16,270,266	16,542,789	10.0	272,523	1.7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1,942,760	1,765,440	1.1	(177,320)	(9.1)
	소식지제작비	4,450,000	5,390,000	3.3	940,000	21.1
	기타홍보비	179,991	63,900	0.0	(116,091)	(64.5)
	소 계	6,572,751	7,219,340	4.4	646,589	9.8
사업 집행비	연대사업	2,805,000	2,345,000	1.4	(460,000)	(16.4)
	일반사업추진	6,663,597	5,229,760	3.2	(1,433,837)	(21.5)
	사업출장비	-	102,700	0.1	102,700	
	회원조직사업비	8,279,275	6,154,520	3.7	(2,124,755)	(28.7)
	후원행사비용	5,770,820	6,070,810	3.7	299,990	5.2
	하계캠프비용		1,026,200	0.6	1,026,200	
	명절수익사업비용		2,760,000	1.7	2,760,000	
	청년활동사업비용		3,280,750	2.0	3,280,750	
	기타사업집행비	30,000	0	0	(30,000)	(100)
소 계	23,548,692	26,969,740	16.3	3,421,048	14.5	
지원경비	동구주민회부	3,000,000	3,000,000	1.8	0	
	소 계	3,000,000	3,000,000	1.8	0	
기타잡비	잡손실	10	0	0	0	
	소 계	10	0	0	0	
지출 총계		180,372,434	165,554,439	100	(10)	
수입지출차액분		-18,967,912	-13,122,613		5,845,299	
총 계		161,404,522	152,431,826		(8,972,696)	(5.6)

4. 부속 설명

1. 자산

○통장잔액(현금 및 기금): 23,024,148 / 전세보증금: 30,000,000

2. 부채

- 미지급비용: 총 922,860원 (예수금 773,420, / 전기요금미납 149,440)
- 미지급퇴직금: 42,861,875원 (퇴직금을 적립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미지급퇴직금으로 부채 처리함.)
- 단기차입금: 2023년 6월 김형진 운영위원을 통해 일천오백만원을 차입(연말 후원금 모금 후 상환예정 이었으나 협의하에 2024년까지 유예함)
- 장기차입금: 2,251,969원 (2021.4.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에서 2천만원 차입, 2024년 4월 만기)

3. 수입

- 일반자동이체 회비 : 월평균 50여건
- 일반후원금 : 월평균2건, 일반후원금 납부자 자동이체 회비납부로 소액 이동
- CMS회비: 월평균 475여건
- 청년활동후원금수입: 홈커밍데이 후원장터 및 청년활동지원모임
- 후원행사수입: 124건(단체포함)
- 일반사업수입: 한일굴욕회담규탄 시민현수막 모금/ 무임교통소송관련 시민모금(13명)/ 일본시민 활동가초청강연회 분담금
- 명절수익사업: 1월 설재정사업수입 (순수익 약 80만원)
- 하계캠프:
- 광고수입: 대구은행 소식지6회 광고, 대구대 1회차 광고(1월)
-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월임대로, 그림판매 등 / 전년도 기타수입과 차이는 청년인턴지원금의 지원 삭감

4. 지출:

- 급여: 최저임금기준 상향. 전년도 분과 차이: 청년인턴급여분
-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분):
- 상여금: 연 3회(추석 설 여름휴가)
- 퇴직급여(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를 적립해야하지만 적립하지 못한 부분이라 부채가 되므로 복식회계기준 지출로 잡고 자산내역에서 부채처리됨. 전년도와 차이는 김선희, 조영태 근무기간의 차이 때문.(11개월, 4개월)
- 정보통신비: 전화 인터넷 우편 금융결제원, MRM이용료
- 도서구입비: 신문대금, 전태일 시집, 김민남 선생님 도서, 예산편성서 자료복사비
- 기타경비: 회비반환, 노인무임교통 소송비용반환, 행사이동 차량비지원, 연말정산환급금지급 등.
- 소식지제작비(발송비): 6회차 제작 발행. (전년도1회 미발행분 차이)
- 일반사업추진비 ; 홍시장고발기자회견, 한일굴욕회담시민현수막, 무임교통기자회견 리플렛제작/ 일본시민활동가초청행사/ 핵오염수 방류 반대사업(걸기대회, 분담금) 대구로페 이등 소송변호사 비용 후원/ 기자간담회/ 회원장터(전년도 북토크 책발간 비용으로 인한 차이)
- 회원조직사업비: 문자발송비(월1-2회)발송, 총회, 운영위(엠티), 설문조사답례품, 뉴스레터, 홈페이지사이트이용비
- 후원행사비 : 사진구입, 사진액자제작, 국립중앙박물관 답례품구입비, 기타 제반경비
- 연대사업비: 연대행사분담금, 시민단체행사 후원, 참여자치연대 월회비 등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하계캠핑비용: 전년도는 회원조직사업비에 포함 (2023년부터 신설, 별도 계정으로 정리)
- 명절수익사업비용: 명절수익사업 제품 구매 비용 (2023년부터 신설, 별도 계정으로 정리)
- 청년활동사업비: 재원마련 회원장터 진행비, 3차 예비모임, 예산공부모임 6차
- 동구주민회교부금: 월 25만원

[총괄 평가]

- 월회비 수입 월 530여명으로 회비 수입에 대한 큰 변동은 없었음.
:자동이체 회비납부 회원이 cms회비로 이동하여 회비수입은 전년도와 큰 변동 없음
:회원가입은 늘어났으나, 그만큼의 탈퇴회원도 있어 회원 가입에 따른 회비 수입변동이 크지 않음.
 - 청년인턴지원사업이 없어지며 기타수입 부분과 인건비에 대한 지출 변동이 있었음.
 - 홈커밍데이 회원장터로 재정확보한 청년활동후원수입이 성과를 얻었고, 청년활동사업비로 인해 사업비 지출이 일부 증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고무적이며, 청년회원 및 활동내용을 넓혀가는 일이 필요함.
 - 월250-300여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후원금 모금이나 재정사업으로 적자와 부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 미지급 퇴직금은 활동가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부채라 현재까지 문제는 없지만 이후 실지출 발생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감사보고

사업감사 보고

회계감사 보고

사업감사보고서

대구참여연대 임원 및 회원 귀중

본 감사는 대구참여연대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사업보고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그 적정성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는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을 준수하고 사업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업무감사의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사업보고자료는 대구참여연대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수행된 사업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참여연대 사업 및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구참여연대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중간 평가 등을 거쳐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사업의 진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피고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 수단 등을 심사숙고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4. 2. 26

업무감사 이승익



회계감사보고서

대구참여연대 임원 및 회원 귀중

본 감사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대구참여연대의 18기 사업연도의 재무보고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재무보고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는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을 준수하였으며 재무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보고자료는 대구참여연대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및 수지내역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외의 내용으로, 대구참여연대는 2023년 회계기간동안 정부의 청년인턴지원제도의 지원금삭감을 따른 청년인턴 인건비 감소 외에 전년대비 수입지출의 큰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활동가들의 퇴직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부채가 높고, 매해 차입을 통해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2월 19일

회계감사 박 선 형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3년 임원 선출안

2024년 조직개편 및 임원 선출안

1 조직개편안

- 1 자문위원회 ▶ 반기별 1회
 - ▶ 대구참여연대 후견, 지역사회 시국선언 제안안 등의 역할
- 2 감사 ▶ 회계감사
 - ▶ 사업감사
- 3 공동대표단 ▶ 상임대표 선출 및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참석
- 4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 ▶ 부위원장: 여성 1, 남성 1, 운영위원회 호선
 - ▶ 당연직위원: 지역조직(동구주민회) 대표(또는 추천 위원)
 - ▶ 정책위원장
 - ▶ 활동기구 대표(또는 추천 위원) ⇒ 참여와 소통위원회
⇒ 외 신설 활동기구
⇒ 회원모임
 - ▶ 선출직위원: 일반회원, 지역/직종/성별 등 고려 10여명
- 5 집행위원회 ▶ 상임집행회의(상임대표,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로 운영
- 6 정책위원회(신설)
 - ▶ 주요분야: 돌봄복지/자치 행정/노동사회/도시환경/청년대학/초고령사회
 - ▶ 좋은정책네트워크 해소, 참여위원 외 충원
 - 격월 1회: 분야별 정책브리핑과 과제 설정
 - 분야별 소규모 포럼이나 집담회(필요시)
 - 연구 과제별(좋은조례, 알찬예산) 팀 구성
 - 활성화되는 분야는 활동기구(위원회 또는 센터)로 발전
 - 장기과제로 부설 정책연구소 등 검토
- 7 사무처
 - ▶ 상근활동가 3인 유지

- ▶ 조영태 정책간사→정책부장
- ▶ 월 1일 자원활동가 시스템 구축, 20명

2 2024 임원인선안

- 1 자문위원회 ▶ 위원장 호선
- 2 공동대표 ▶ 연임: 박경로, 정혜숙, 엄창옥
▶ 신임:
- 3 상임대표: 박경로
- 4 감사 ▶ 회계감사: (연임) 박선형 회계사
▶ 사업감사: (신임) 신동완 감정평가사
- 5 운영위원회 ▶ 위원장: 류영준 ※ 부위원장은 운영위 호선
▶ 당연직: 박경로 김보영 김형진 양희
▶ 선출직: (연임) 김주옥 김채원 도경화 문창식 박근식 이종득
윤지현 이승연 한경국
(신임) 박찬미(여성단체 활동) 이주영(주택관리사)
김명환(전좋은정책네트워크 위원, 사회보험노조활동)
문용우(전 운영위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시 선출
- 6 집행위원회(상임집행회의) ▶ 책임: 류영준 운영위원장
- 7 정책위원회 ▶ 위원장: 김보영(전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
▶ 부위원장: 이소영(전 좋은정책네트워크 부소장)
- 8 활동기구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형진(연임)
- 9 사무처장: 강금수(연임)

2023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활동방향

주력사업

회원·조직 활동

연대활동

예산안

2024년 활동방향

2024년, 안팎의 상황이 엄중합니다.

- ❶ 2022년 지방선거 결과 대구의 정치지형은 수구보수 지배로 회귀, 보수 일방의 퇴행과 폭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친기업 반노동, 선성장 후복지, 개발지상 반생태의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 본격화될 것입니다.

올해는 금호강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지방대와 지역경제의 위기, 지방정치의 문제, 청년문제와 초고령사회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논쟁하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행태 비판에서 정책 비판으로 이동하고, 단체 위주의 관행적 활동을 넘어 시민 당사자의 참여와 행동으로 정책을 견제하고 조례와 예산을 바꾸는 방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❷ 윤석열 정부 역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도 무시하며 반개혁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주권, 한반도 평화, 복지와 인권이 위협받고, 서민 경제는 더욱 위기로 내몰릴 것이며, 지방의 위기 또한 가속될 것입니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촛불이 위임한 권력으로도 아무 개혁도 하지 않은 세력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선 후에도 정권의 퇴행과 폭주가 계속된다면 비판을 넘어 강력한 시민연대를 구축,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단체 간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체 간 연대를 넘어 뜻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연대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 ❸ 시민운동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구참여연대 또한 조직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인적, 정책적 역량을 조직하는 힘과 활동에 배치할 구조가 좁아지고, 재정문제 또한 활로를 찾지 못하여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동 주체와 실천방식, 중심의제와 정책역량, 조직구조와 협동 네트워크 등 부분적 보강이 아닌 구조적 이행과 전환을 위한 전략적 모색이 필요합니다. 사무처 활동가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임원, 회원이 같이하는 활동, 활동의 결과물이 회원확대와 재정확충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모색하고, 조직과 재정을 정비하여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2024년, 이런 방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❶ 시·의정 감시 활동의 변화와 혁신을 기하겠습니다.

- 행태 비판에서 정책 비판으로, 사회적 쟁점과 논쟁을 일으키는 방향
- 단체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청원, 청구, 고발 등
- 광역 중심에서 기초로 확장, 구·군(의회)부터 정책 제안·제도화·확산

❷ 대구변화 중의제를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설)정책연구소 등 검토
- 공공의료·지역돌봄·초고령사회 등 사회·복지 의제와 추진체계
- 지역정치 혁신을 위한 비정당 시민정치·풀뿌리 지방정치 의제와 추진체계

❸ 조직 재편·재정기반 확충 등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 청년의제 개발·청년세대 참여 확대 등 세대 이행 준비
- 불런티어 회원 활동가 활동체계 마련 등 사무처 강화
- 시민참여+재정확보 통합 프로그램 기획
- 유튜브 운영, SNS 활성화 등 시민소통 강화

2024년, 4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홍준표 시정 주요시책 정책비판·대안제시 활동**

1. 집중감시 중점시책 설정(ex)

- 민생시책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골목상권 및 노동자 휴식권
 - ▶ 대구로페이 문제- 발행 규모 축소와 실물카드 사용 제한 문제
- 대중교통 ▶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따른 노인복지 축소 문제
 -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노선체계와 대구 패스 요금체계 혁신
- 취수원이전 ▶ 안동댐 이전 비판, 낙동강 유해물질 문제와 수질 개선
- 금호강개발 ▶ 팔현습지, 두바이식 개발, 파크 골프장 등 감시, 반대 활동
- 통합신공항 ▶ 추진 절차와 방식, 투입 예산 등 감시, 비판

2. 활동 방식과 수단

- 정보공개청구, 비판 성명, 시민연명 감사청구 등
- 해당 지역 의원, 단체와 공동 자료조사와 실태조사, 토론회 등
- 현장 이해관계 당사자와 실태조사, 시민행동, 시민청원 등
- 연구단체와 공동 연구, 정책포럼, 정책제안 등

ex) 무임승차 연령 상향 피해 시민소송, 저소득층 노인 교통비 보전 조례청원
전통시장, 골목상가 현지 상인 면접 조사, 활성화 방안 시민청원
낙동강 수돗물 유해물질 문제 민관합동조사단 검증, 개선 대책 마련
더 좋은 대구 패스 시민토론회

② **‘좋은조례·알찬예산’ 정책사업**

1. 사업 개요

- 제목: 대구를 바꾸는 ‘좋은조례·알찬예산’ 프로젝트
- 참여: 지방의원 + 연대 단체 및 활동가 + 학계 연구자 + 대학(원)생
- 재정: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 목적 후원(해피빈 등) + 협력기관 후원...
- 주관: 정책위원회/ 실행: 산하 연구팀

2. 추진 방안

- 가능한 연구과제 설정: 년 3개 내외
- 프로젝트 기획안 및 설명 리플렛 제작
 - 참여 의원 모집(정당 협조 요청·직접 섭외 병행)
 - 연구팀 구성

- 자료조사와 분석 → 워크숍 → 보고서
- 토론회 → 조례제정(시민 청원·의원 발의) → 예산 요구
- ※ (국내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 조례에 따른 정책, 정책에 수반된 예산 비교
해외사례 추가 → 선진내용 정리 → 지역에 맞게 구체화
- 연구주제 ex) 더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의회 제도
 - 시민, 지역이 돌본다. 앞서가는 지역돌봄제
 -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지자체 조례 연구
 - 더 좋은 참여예산제 연구....
- 연대 그룹과 함께 예산, 조례 활동(EX)
 - ▶ 환경 :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선도적 시행 촉구
 - ▶ 청년 : 대구청년유니온 등/ 청년예산 증액 및 청년인지예산제도 실시
 - ▶ 보건의료 : 새로운공공병원만들기대구시민행동/ 공공보건의료 확충 요구
 - ▶ 시정예산 : 뉴스민 등/ 낭비성 예산 문제, 지방채 오해 문제, 예산안 공개 등

③ 2024 대구를 바꾸는 ‘참여자치 시민학교’

- 예산을 알고, 정책을 바꾸자 ‘참여자치 예산학교’
- 정책위원회·나라살림연구소 등 연계
- 프로그램(ex) ▶ 예산의 기초이론과 예산감시의 방법론
 - ▶ 2024 정부예산과 국정 이해 그리고 국회의 예산 활동
 - ▶ 2024 대구시 예산과 시정 이해 그리고 의회의 예산 활동
 - ▶ 2024 00구 예산과 구정 이해 그리고 의회의 예산 활동
 - ▶ 사례로 배우는 예산감시운동과 발전 과제
 - ▶ 사례로 배우는 참여예산제와 제도개혁 방안
 - ▶ 집단 워크숍: 이런 예산 문제 있어. 이런 예산은 어때?
- 예산감시 및 예산제안 그룹 형성
- 후속 활동 검토 ▶ 참여예산제 광역사업 및 지역사업 예산공모 참여

④ 4.10 총선 부적격 후보 퇴출 · 부적격 정책 비판 활동

- ① 부적격후보 낙천낙선 촉구 ▶ 1차 예비후보 대상 공천 반대
 - ▶ 2차 경선후보 대상 공천 반대
 - ▶ 3차 본선후보 대상 낙선 촉구
- ② 부적격정책 비판 활동 ▶ 각 정당 및 후보의 공약 중 나쁜 공약 비판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각 정당 대구지역 주요공약 평가토론회

③ 대구 변화 0대 정책공약 발표, 채택 촉구

④ 부정선거 시민고발: 고발전화 개설, 선관위 신고 등

일상사업 · 지속사업도 알차게 챙기겠습니다.

1. 홍준표 시장 퇴행 · 독주 견제 활동

-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까지 지속적 모니터, 끈질기고 집요하게 대응
- 쟁송의 승패를 넘어 독주를 견제하고 시정의 변화를 견인하도록 활동
 - ▶ 대구시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 ▶ 쿼어축제 집회방해 고발 건
 - ▶ 대구로 불법·특혜 고발 건
 - ▶ 대구로페이 실물카드 사용제한 시민불편 주민감사청구 등
 - ▶ 인사권 남용 감사청구 건

2. 회원교육/시민특강

- ① 회원포럼: 분기별, 4회 정도
 - 프로그램(ex) ▶ 만화(영화)로 읽는 우리 사회
 - ▶ 과학으로 알아보는 기후위기
- ② 초청강연회: 년 2회 정도
 - 프로그램(ex) ▶ 다시 드리우는 냉전과 전쟁의 그림자 등

3. 회원참여 · 재정사업

- ① 집으로 오는 날, ‘회원장터’
 - 4월/ 동구·구미 공동
 - 국밥·국수/족구·당구/물품 장터
- ② 해설자와 함께하는 테마 여행
 - 대상: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가능.
 - 공동진행: 회원여행사(차량, 숙소, 음식점)
 - 진행방법 ▶ 적정 참가비, 수익금 일부 참여연대 환원
 - ▶ 월 1회 정도, 20명 모집을 기본으로
 - ▶ 해설사와 함께: 관련 테마 전문가(교수, 활동가 등)
 - ▶ 년 1회 정도 해외 테마여행

○ 프로그램(ex)

- 문학기행 ▶ 강원도에서 근대문학을 만나다,
 - ▶ 조정래, 태백산맥. 벌교/ 무진기행, 김승옥 순천 등
- 역사기행 ▶ 서울 궁궐기행, 5.18 광주, 임진각·DMZ 통일 기행
- 드라마 촬영지, 전통시장 투어 등

- ③ 회원가입 캠페인: 대학 순회/ 청소년회원 모집 등
- ④ 후원행사: 대면 행사로 기획(공연, 전시회, 찾집...)
- ⑤ 회원 북콘서트 ▶ 년 1회 정도
 - ▶ 회원 저서, 회지 기고 글, 글쓰는 회원들 합동 출판 등

4. 시민소통 매체 활동

- ① 유튜브: 월 1개 기본으로 정기성 확보/ 관련 예산 편성
- ② SNS: 회원 인플루언서 협력 네트워크

연대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집행책임을 맡은 연대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등 시국 연대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수도물 유해물질 문제 등 민생 사안에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1. 책임 참여

-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지역활동 책임단체, 대구경실련 공동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단체(박경로대표), 집행단체 ※ 부록 참조
-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집행책임 단체 ※ 부록 참조
- 윤석열심판 관련 시국연대 활동

2. 적극 참여

- 4.16연대 참사 10주기 사업
- 전세사기대구대책위
- 금호강 개발 저지, 낙동강 지키기 관련 연대활동
- 10월항쟁진실규명 관련 연대활동
-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연대활동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3. 단순참여

퀴어축제조직위원회

3.8여성대회조직위원회

인권주간조직위원회

장애인차별철폐주간조직위원회

5.18, 6.10, 10월항쟁 등 기념행사

4.9인혁열사 등 각종 추모행사

2024년 예산안

1. 수입

(단위:원)

항	목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안	비율 (%)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7,318,000	8,000,000	4.4
	CMS회비	85,802,000	87,000,000	47.8
	연회비	100,000	500,000	0.3
	평생회비			
	소 계	93,220,000	95,500,000	52.5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3,060,000	3,000,000	1.6
	청년활동지원금	5,991,000	3,000,000	1.6
	사업후원금			
	후원행사수입	29,150,000	38,000,000	20.9
소 계	38,201,000	6,000,000	22.5	
기타수입	광고수입	9,000,000	9,000,000	4.9
	이자수입	1,096	2,000	0.0
	해피빈수입	304,400		0.5
	기타수입	4,330,460	1,000,000	1.9
소 계	13,635,959	3,500,000	7.4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3,350,000	4,000,000	2.2
	명절수익사업수익	3,365,000	3,500,000	1.9
	일상수익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5,000,000	2.7
	하계캠프수입	600,000	1,000,000	0.5
소 계	7,315,000	16,500,000	9.1	
기타잡수입	잡이익	59,870	498,000	0.3
	소 계	59,870	498,000	0.3
순수입합계		152,431,826	167,000,000	
단기차입금			15,000,000	8.2
총 계			182,000,000	100

2. 지출

(단위:원)

항	목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안	비율(%)
인건비	급여	90,380,880	91,000,000	50.0
	사회보험료	10,493,870	11,000,000	6.0
	상여금	3,600,000	3,600,000	2.0
	퇴직급여	7,347,820	7,500,000	4.1
	소 계	111,822,570	113,100,000	62.1
일반관리비	지급이자	58,921	50,000	0.0
	사무실임차료	9,600,000	9,600,000	5.3
	정보통신비	2,147,297	2,200,000	1.2
	사무용품비	41,820	400,000	0.2
	소모품비	264,740	250,000	0.1
	도서구입비	647,000	500,000	0.3
	지급수수료	939,401	950,000	0.5
	수도광열비	1,402,580	1,500,000	0.8
	기타경비,세금	1,060,030	1,000,000	0.5
	소 계	16,542,789	16,450,000	9.0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1,765,440	1,800,000	1.0
	소식지제작비	5,390,000	5,500,000	3.0
	기타홍보비	63,900	150,000	0.1
	소 계	7,219,340	7,450,000	4.1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2,345,000	2,100,000	1.2
	일반사업추진비	5,229,760	6,400,000	3.5
	사업출장비	102,700	300,000	0.2
	회원조직사업비	6,154,520	6,200,000	3.4
	후원행사비용	6,070,810	6,500,000	3.6
	하계캠프비용	1,026,200	1,000,000	0.5
	명절수익사업비용	2,760,000	2,500,000	1.4
	청년활동사업비	3,280,750	2,000,000	1.1
	기타사업집행	0	0	0.0
소 계	26,969,740	27,000,000	14.8	
지원경비	동구주민회교부	3,000,000	3,000,000	1.6
	소 계	3,000,000	3,000,000	1.6
기타잡비	잡손실	0	0	
	예비비	0	400,000	0.2
	소 계	0	400,000	0.2
(수입지출차액)		(13,122,613)		
순지출총계		161,404,522	167,000,000	
단기차입금상환			150,000,000	8.2
총 계			182,000,000	100

3. 부속 설명

1. 수입

- 회비: 회원 확대 및 회비 증액 고려 일부 증액 편성
- 후원금
 - 후원행사수입 :대면행사 진행, 부채상환 등을 고려하여 2024년 후원행사수입 증액편성
- 기타수입:
 - 광고수입:소식지 광고 수입(대구대, 대구은행)
 - 해피빈수입: 일반사업진행시 해피빈 모금
 - 기타수입: 참여연대 임대료등
- 사업수입
 - 청년활동지원사업수입: 청년활동 지원사업(대구문화예술프리)
 - 기타사업수입: 홈커밍데이 회원장터 판매수입

2. 지출

- 급여: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및 사회보험료 상향 조정
- 일반관리비: 전년기준 편성
- 홍보비: 전년기준 편성
- 사업집행비: 전년기준 편성
- 지원경비: 전년기준 편성

3. 총괄

- 상시적 회원가입 권유를 통한 더디지만 꾸준한 회비 수입 증액 도모
- 후원행사수입 외 회원장터 수입을 통한 수입 증대
- 청년활동기금을 통한 청년활동사업 상시적 진행
- 차입금 상환을 통한 일부 부채 정리.

부 록

2023 대구참여연대 활동일지

2023 언론에 비친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정관

대구참여연대가

2023 대구참여연대 활동일지

- 1.11 [보도자료] 흥 시장 홍보 매체로 전락한 대구시 유튜브, 시의회에 조사·문책 진정서 제출
- 1.11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1.12 [회의]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 1.17 [성명] '왜교부'인가 '외교부'인가, 일본강제동원 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 1.18 [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 회의
- 1.27 [성명] 도시브랜드를 시장 마음대로, 안 돼!, 시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해야
- 1.30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 흥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

- 2.02 [보도자료]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청구
- 2.08 [회의] 총회준비 위원회 3차 회의
- 2.09 [성명] 흥준표 시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 70세로 상향, 중단하라!
- 2.13 [성명] 비위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촉구
- 2.14 [토론회] 제2대구의료원 설립관련 정책토론회
- 2.16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 2.20 [성명] 배태숙의원, 비위 은폐 시도 중단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 2.22 [기자회견] 흥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기자회견
- 2.23 [총회] 제25차 대구참여연대 정기총회

- 3.03 [연대기자회견] 세계야생동식물의 날 기념, 금호강 야생동물 삶터 지키기 기자회견
- 3.06 [공동성명] 일본의 진정한 사죄 없는 강제징용 합의안에 분노한다!
- 3.07 [연대단체회의] 새로운공공병원설립위 집행위회의
- 3.08 [연대행사] 세계여성의 날 대구여성대회 참석
- 3.08 [성명] 비리 의원 비호하는 중구의회, 중구청 규탄한다
- 3.09 [연대기자회견]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촉구 기자회견
- 3.13 [공동기자회견] 굴욕외교 친일매국정부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반대, 한미일삼각동맹반대
- 3.13 [성명]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유보하라!
- 3.16 [의회방청] 대구시의회 방청
- 3.15 [공동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 망언 규탄한다
- 3.16 [논평] 대구시의회, 노인 무임교통 연령상향 조례안 유보에 부처
- 3.17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 3.20 [성명] '민주주의가 싫다'시민의 토론 청구까지 막는 흥시장 비판
- 3.22 [연대단체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 회의
- 3.23 [기자회견]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상향 조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 3.23 [공동성명] 노인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거수기 의결 규탄한다!
- 3.23 [연대단체회의] 대구4.16연대 대표자회의 참석
- 3.24 [1인시위] 대구시의회 노임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의결 규탄 1인시위
- 3.26 [회원걷기모임] 3월 걷기모임-동구 불로고분군과 봉무 공원
- 3.28 [성명] 대구교통공사 직원채용 학력차별, 문제 있다. 즉시 사과하고 인사행정 시정하라
- 3.30 [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 3.31 [연대활동] 뉴스민 후원회 참석
- 3.30 [성명] 코오롱글로벌과 대구시의 협약 파기 조짐에 대한 입장

- 4.04 [성명] 대구 10대 응급외상 환자 사망 사건에 부처
- 4.06 [보도자료] 노인무임교통 연령제한 문제, 정책토론 청구 시민서명 추진
- 4.09 [연대활동] 4.9인혁열사 48주기 추모제 참석
- 4.10 [공동보도자료] 조례안 최단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4.10 [기자회견] 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정책토론클구 개악을 반대한다!
- 4.11 [회의] 윤석열 특위 1차 회의
- 4.12 [보도자료]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 동원, 대구시 즉시 감사하라!
- 4.12 [공동기자회견]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 4.15 [홈커밍데이] 25주년 홈커밍데이 /청년활동기금마련 회원장터
- 4.19 [연대단체회의] 새로운공공병원설립위 집행위 회의
- 4.24 [기자회견] 포스코는 일본 전범기업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 4.25 [성명] 대구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라!
- 4.26 [공동기자회견]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 4.27 [보도자료] 이시복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의뢰

- 5.01 [연대활동] 세계노동절기념 집회 참석
- 5.02 [회의] 윤석열 특위 1차회의(온라인)
- 5.03 [성명] 건설노조조합원의 분신사망은 윤석열정부의 노조탄압이 불러온 비극
- 5.03 [연대회의] 전국 참여자치연대 집행위회의(온라인)
- 5.05 [연대활동] 동구어린이날잔치 참여
- 5.10 [공동기자회견] 민생파탄,민주실종,평화위기,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 5.10 [성명] 홍준표 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도넘은 반민주퇴행 규탄
- 5.11 [회의] 5월 집행위원회 회의
- 5.12 [공동성명]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도 건립공약폐기
- 5.13 [견기모임] 5.18민중항쟁기념 광주묘역참배 및 회원 걷기
- 5.17 [연대활동] 새로운공공병원 집행위 회의
- 5.18 [연대활동] 5.18민중항쟁기념식 참석
- 5.23 [공동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류 반대 경북도지사 및 도의회 결의문 채택 요구
- 5.23 [성명] 홍준표 시장 인사권남용, 측근 챙기는 정실인사, 문제있다.
- 5.24 [연대회의] 전국 참여자치연대 집행위회의(온라인)
- 5.25 [연대활동]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후원행사 참석
- 5.26 [공동기자회견] ‘한희원’씨의 경북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대한다
- 5.30 [기자회견] 대구 3대습지, 팔현습지 망가뜨리는 금호강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반대한다.
- 5.31 [회의] 5월운영위원회 회의

- 6.05 [성명]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무용지물, 관행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 6.07 [청년모임] 청년모임 준비모임 1차
- 6.08 [공동기자회견]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대구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6.08 [보도자료] 홍준표 시장 위법인사, 재량권 남용 감사원 감사 청구
- 6.10 [연대활동] 6.10민주항쟁 36주년기념식 참석
- 6.15 [성명] 대구시, 공공기관통합 채용제도 도입으로 예산절감, 채용비리 방지해야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6.16 [성명] 경찰청은 홍준표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하라
- 6.17 [연대활동] 대구퀴어축제 참석
- 6.17 [청년모임] 청년모임 준비모임 2차
- 6.19 [성명] 대구시 의회, 가창면의 수성구편입 신청 동의안 유보하라
- 6.22 [성명]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독립성위협 홍시장 발언에 대한입장 밝혀야
- 6.22 [회의] 6월 운영위원회 회의
- 6.26 [논평] 퀴어축제와 선거법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1)
- 6.27 [논평] 퀴어축제와 선거법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2)
- 6.28 [논평] 퀴어축제와 선거법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3)

- 7.01 [회원모임] 걷기모임-동구팔현습지걷기
- 7.04 [보도자료] 홍준표 시장 1년평가. 홍준표 시장1년은 퇴행과 폭주의 시간
- 7.05 [토론회] 일본핵오염수 해양방류, 대구시민은 안전한가
- 7.10 [연대회의]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회의
- 7.12 [기자회견] 대구시 집회시위자유침해, 국가손해배상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
- 7.17 [성명]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홍시장, 대구시정 말길 수 있나
- 7.18 [토론회] 일본시민운동가(나카가와미유키)초청강연회- 대구공익센터상상홀
- 7.20 [기자회견] 도시철도 무료이용 연령상향반대, 조례취소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 7.21 [성명] 중구 의회 배태숙 의원,감사원 결과에 대한 입장
- 7.22 [성명] 대구시민이 묻는다! 국민의힘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 7.27 [기자회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의원직 사퇴 및 안재철 의원 윤리특위위원장직 사퇴촉구
- 7.28-29 [회원캠프] 대구참여연대 하계캠프, 영덕 옥계계곡

- 8.04 [논평]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본회의 제명을 촉구한다
- 8.07 [논평] 배태숙 의원 제명 부결시킨 중구 의회 규탄
- 8.07 [연대행사]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반대 시국 미사회 참여
- 8.10 [보도자료] 대구시민단체, 배태숙의원 등 중구 의원, 공무원 경찰에 고발
- 8.10 [회의] 8월 운영위원회 회의
- 8.15 [연대행사] 8.15 후쿠시마핵오염수 방류 반대 대구시민 걷기대회 진행
- 8.16 [연대회의] 새로운공공병원위원회 집행부 회의
- 8.23 [성명]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
- 8.31 [성명] 민간투자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건설, 재검토해야한다

- 9.1 [연대기자회견] 당연직 이사 3명 직무유기 고발(한국패션산업연구원사태해결공동대책위)
- 9. 5 [성명] 지방의원 불법계약만연, 대구시 감사위원회 전면감사 촉구
- 9. 5 [공동성명]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9. 7 [기자회견] 대구형 배달플랫폼'대구로' 특혜 불법문제 설명회 및 고발 기자회견
- 9. 13 [공동기자회견] 팔현습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규탄(금호강난개발저지대구경북공동대책위)
- 9. 16 [회원조직사업] 운영위원 엠티-청도
- 9. 16 [보도자료] 대구로페이 전자카드 발급 제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대구경실련 공동)
- 9. 20 [연대행사] 대구기후정의행진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 9. 20 [성명]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고위직의 공공시설 사용 특혜 비판
- 9. 26 [공동성명] 대구시의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호도 문제있다
- 10. 6 [연대행사] 10월항쟁 77주기 가창 위령제 및 대구경북시도민대회 참석

- 10.12 [회의] 10월 정기운영위원회개최
- 10.13 [성명] 유엔인권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구북구청의 거짓 소명 규탄
- 10.16 [토론회] 지역취약계층 의료지원 정책 이대로 좋은가-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 10.17 [성명] 대구 시의회, 교섭대상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지출 문제있다
- 10.19 [시국좌담회] 현시기, 대구경북 무엇을 할 것인가-대구경북시국좌담회준비위
- 10.20 [기자간담회] 대구시 기자에게 대구참여연대를 묻다
- 10.23 [논평] 국정감사, 대구시만 생중계 안해! 문제있다
- 10.23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1차
- 10.26 [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회의-온라인
- 10.27 [성명] 신청사 이전의 독선과 혼선, 홍준표 시장 사과하라
- 10.27 [회의] 전세사기대구대책위회의
- 10.30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2차
- 10.31 [공동기자회견] 국민은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보 즉각 개방하라!-낙동강네트워크

- 11. 6 [연대행사] 세월호 간담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미와 향후과제
- 11. 6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3차
- 11. 8 [공동성명]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불만과 피해, 엄정 감사 촉구
- 11. 9 [공동기자회견]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11.10 [논평] 홍준표 시장, 억지 부리지 말고 언론 옥죄기 그만 멈추라
- 11.13 [공동성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화살을 멈춰라
- 11.13 [논평] 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등 담당 기관의 늑장 처리 비판
- 11.13 [연대행사] 전태일 53주기 기념식 및 전태일 시집 발간 출판기념회 참석
- 11.13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4차
- 11.15 [공동기자회견] 전세사기.강동전세 영남권 피해자 특별법 개정 촉구
- 11.15 [공동기자회견] 금호강 팔현습지 생태파괴 산책로 공사 조장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 11.17 [연대행사] 제15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참석
- 11.20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5차
- 11.22 [연대행사]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 11.22 [연대행사]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 11.23 [보도자료] 2024년 대구시 청년예산 대폭삭감, 문제있다
- 11.24 [모임] 2023 전·현직 임원·활동가 모임
- 11.27 [청년기획] 청년정책 예산공부모임 6차
- 11.28 [성명] 중구의회, 의회 존립이유상실, 일괄 사퇴 재선출해야!
- 11.28 [세미나] 울산의료원 설립운동 20년 제2대구의료원 설립 모색(새공공병원설립시민행동)
- 11.28 [연대행사] 대구경실련후원금행사참여
- 11.29 [성명] 거대양당은 망국적 선거법을 지금 당장 개혁하라
- 11.29 [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 회의(온라인)

- 12.05 [기자회견] 전세사기대책위 대구 집회 참여
- 12.07 [성명] 노동자 생존 깃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거부권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
- 12.08 [1인시위] 전세사기대책위 1인시위 참여
- 12.11 [공동성명]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선거제도 제대로 개혁하라
- 12.12 [연대기자회견]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혁 촉구
- 12.13 [연대회의] 일본핵오염수방류반대대책위 연대회의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12.14 [성명] 거대양당의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한다
- 12.19 [회의] 새로운공공병원대책위 집행위회의
- 12.20 [연대기자회견] 일본핵오염수방류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 12.22 [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 회의(서울)
- 12.27 [기타] 원유술신부 44주년 은퇴 미사 참여
- 12.29 [총무식] 2022년 총무식 및 공간7549 송년회

2024년

- 1. 3 [성명]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철면피 인사 규탄한다
- 1. 9 [보도자료] 대구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제정 필요
- 1.11 [성명] 경찰청과 감사원의 홍준표 시장 사건 직무해태 규탄
- 1.26 [연대기자회견]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 1.29 [성명]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제도 개악논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 1.30 [성명]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1.31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선언] 시민의 힘으로 '다시한번, 기억약속심판'

- 2. 7 [성명] 대구경찰청,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해야
- 2.13 [성명] 군위군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 2.14 [성명]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 2.15 [보도자료] 21대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 후보 11명 발표
- 2.19 [연대성명]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됩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2024총선시민네트워크
- 2.20. [성명] 의사들은 정당성없는 집단진료거부 중단하라

2023 언론에 비친 대구참여연대

- 2023.01.03 대구MBC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 변경 2월부터? "법 취지 훼손" 비판 나와
- 2023.01.04 대구MBC [심층]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바뀌나? 대구시, 관련법 취지 훼손 논란
- 2023.01.04 오마이뉴스 이태원 막말 영상 공유한 대구시의회 의장 "좋아요 누르려다 잘못해서"
- 2023.01.04 대구MBC 대형마트 의무 휴업 변경, 대구 구·군청 입장은?
- 2023.01.05 평화뉴스 해돋아·폭죽...대구 지자체, 일회성 '새해맞이' 행사에 혈세 3억
- 2023.01.10 통일뉴스 각계 종교·시민사회,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 호소
- 2023.01.11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 "대구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개인 홍보로 변질"
- 2023.01.12 KBS 참여연대 "대구시 유튜브 홍준표 홍보 전략"
- 2023.01.13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흥카콜라 2중대 전략 대구시 공식 유튜브 맹비난
- 2023.01.16 매일신문 [단독]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2년...중앙정부 개입, 해결 방안 모색
- 2023.01.16 머니투데이 "이슬람사원 반대는 종교탄압"...홍준표 규탄한 시민단체 왜?
- 2023.01.17 오마이뉴스 "전범기업 면죄부 주는 외교부, 왜교부인가?"
- 2023.01.17 평화뉴스 "일본 사죄 없는 배상은 굴욕"...대구참여연대, '강제징용 해법' 반대
- 2023.01.21 대구MBC "의무 휴업일 변경" 노조, 직권남용 등 대구시장 고발 방침
- 2023.01.27 글로벌이코노믹 시장 마음대로 '파워풀 대구' 바꿔...'홍준표 상징' 변질
- 2023.01.30 대구MBC 마트노조·대구참여연대 등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 2023.01.30 오마이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앞두고 고발당한 홍준표 시장
- 2023.01.30 연합뉴스 시민단체·노조, 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 고발
- 2023.01.30 영남일보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시민단체·정의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洪 시장 고발
- 2023.01.30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 2023.01.30 노컷뉴스 정의당 대구시당, 강요죄 등의 혐의로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
- 2023.01.30 BBS NEWS 시민단체·노조, 마트 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 고발
- 2023.01.30 쿠키뉴스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 2023.01.30 뉴스1 마트 휴업 평일 전환에 시민단체·정의당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고발
- 2023.01.30 노컷뉴스 대형마트 노조,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고발
- 2023.01.30 LG헬로비전 대구참여연대 등,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마트 의무휴업일 '강요'"
- 2023.01.30 프레시안 홍준표 대구시장,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검찰에 고발 당해
- 2023.01.30 뉴스민 의무휴업 전환 논란...대구참여연대·정의당, "홍준표 강요죄로 고발"
- 2023.01.30 한겨레 홍준표 시장, 대형마트 평일 휴업 '강요죄' 혐의로 고발 당해
- 2023.01.30 THE FACT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당한 홍준표 대구시장...'시장 지위 권한 남용'
- 2023.01.30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정의당대구시당,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고발
- 2023.01.30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등,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고발
- 2023.01.30 안동MBC R]"건강은 뒷전?"..마트 노동자, 대구시장 고발
- 2023.01.30 경북일보 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고발...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 강요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2023.01.30 평화뉴스 "휴무일 강제변경"...마트노조, 홍준표 시장·이창양 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 2023.01.30 KBS 정의당-참여연대, 검찰에 대구시장 고발
- 2023.01.30 경북매일신문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 2023.01.30 서울신문 시민단체, 홍준표 고발...“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강요”
- 2023.01.30 대구MBC "건강은 뒷전?"...마트산업노조, 대구시장 고발
- 2023.01.31 중앙일보 대구 대형마트, 이제 월요일에 쉰다...마트 노조는 홍준표 고발
- 2023.01.31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정의당 대구시당, 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
- 2023.02.02 뉴스클레임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 전면 철회"...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 2023.02.02 대구MBC 참여연대, 대구 중구의원 이해방지법 충돌 공익감사 청구
- 2023.02.03 뉴시스 "대구 기초의원 유명회사 차리고 구청과 상습 수의계약" 의혹
- 2023.02.03 노동과세계 대구시의 "고사전략, 임금체불"... 패션연 노동자는 꺾이지 않는다!
- 2023.02.03 내일신문 대구참여연대, 구의원 감사 청구
- 2023.02.03 KBS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중구의원 감사 청구
- 2023.02.09 SK브로드밴드 [심층]감방 월급 수정구 의회만 제한...7개 의회는 구속돼도 지급
- 2023.02.09 영남일보 75세 이상 대구시민, 7월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특·광역시 첫 시행
- 2023.02.09 오마이뉴스 대구시 어르신 무임승차, 시작도 전부터 비판 목소리
- 2023.02.10 KBS 시민단체 “무임승차 연령 상향, 복지 후퇴”
- 2023.02.10 여성신문 대구시 어르신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 반대 목소리 높아
- 2023.02.13 대구MBC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중단 조례 제·개정 촉구
- 2023.02.21 뉴스민 대구 중구의원 차명회사 의혹 논란...대구참여연대 사퇴 촉구
- 2023.02.22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시 공식 유튜브 사유화”
- 2023.02.22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 2023.02.22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시 유튜브가 시장 홍보 매체 전략...검찰 고발"
- 2023.02.22 중앙일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유튜브 홍준표 홍보 매체로 전략...檢고발"
- 2023.02.22 뉴스민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홍보 매체’된 대구시 유튜브 고발...법 적용 될까?
- 2023.02.22 BBS NEWS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2023.02.22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 2023.02.22 대구MBC 홍준표 시장 이미지로 가득한 대구시 유튜브...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 2023.02.22 TBC 참여연대, 대구시장, 유튜브 담당자 고발
- 2023.02.22 [B tv 대구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시장 검찰 고발...“유튜브 채널 사유화”
- 2023.02.22 평화뉴스 "대구시 유튜브, 홍준표 홍보매체로 전략"...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2023.02.22 KBS 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23.02.22 여성신문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유튜브 담당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2023.02.22 경북매일신문 "市 유튜브가 시장 홍보 채널" 대구참여연대, 검찰에 고발
- 2023.02.23 프레시안 대구시, 공식 유튜브 '홍준표 개인 홍보' 지적에 거짓 해명 논란
- 2023.02.24 매일신문 시민 삶 팍팍한데...! 기초의회 수백만원대 해외연수 눈총
- 2023.02.24 평화뉴스 대구 중구의원들, 차명·아들 회사로 구청과 수의계약 '불법' 의혹...구청 "감사 중"
- 2023.03.06 뉴스1 정신대할머니대구시민모임 "일본 사죄 없는 굴욕 혐의안"
- 2023.03.06 프레시안 홍준표 대구시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침해 홍보 논란'... 대구시 "관여할 사항 아냐"

- 2023.03.06 오마이뉴스 "강제동원 합의안은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의 복사판"
- 2023.03.06 매일신문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대승적 결단 vs 피고기업 빠진 '반쪽'
- 2023.03.06 평화뉴스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대구 시민사회 "일본에 면죄부, 철회"
- 2023.03.06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복사판"
- 2023.03.06 TBC 대구 시민단체, "굴욕 합의안 즉각 철회하라"
- 2023.03.07 영남일보 대구시민단체 "일본의 진정한 사죄 없는 굴욕적인 강제징용 합의안" 주장
- 2023.03.07 뉴스민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서 사라진 '홍준표 쇼츠'...선관위 규정 변경
- 2023.03.08 뉴시스 대구 중구의회, 해외연수 싸워서 못가나?...하반기로 연기
- 2023.03.08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기초의원 계약 비리 전수조사 해야"
- 2023.03.09 내일신문 대구 중구의회 아들회사 위장납품
- 2023.03.12 대구신문 "갑질논란 의원은 윤리위 회부, 계약비리 의원은 조치 없어"
- 2023.03.13 뉴시스 대구경찰 왜 이러나?...도박·스토킹·음주운전·수뢰 '얼룩'
- 2023.03.14 KBS 시민단체, 승차연령 상향 조례안 유보 촉구
- 2023.03.14 뉴스민 대구 70세 이상 무임승차 조례 통과될까...대법원 판결레는 '효력없다'
- 2023.03.14 매일신문 대구참여연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초고령화 시대 역행"
- 2023.03.14 대구MBC [심층] 홍준표 이미지 가득하던 대구시 공식 유튜브...고발하니 통째로 사라져
- 2023.03.14 안동MBC [R]대구시 유튜브서 삭제된 홍준표 영상 수사 착수
- 2023.03.15 대구MBC 만평] 대구시 공식채널을 시장 개인홍보에 사용?
- 2023.03.15 대구일보 대구 중구청, 정책보좌관 인사 논란...그를 뽑은 이유는?
- 2023.03.16 THE FACT 대구시 '70세 이상 무임교통 지원 조례' 통과될까...법제처 유권해석 중
- 2023.03.16 브레이크뉴스 대구시 무임교통 지원 조례개정 추진... 우려 쏟아져
- 2023.03.16 한겨레 전철 무임승차 '65살→70살 상향' 조례안...대구시의회, 속도조절론
- 2023.03.16 대구MBC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조례안 심사 유보
- 2023.03.16 오마이뉴스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 조정 조례안 심사 유보
- 2023.03.16 TBC 대구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지원 제도, 의회 "심사 유보"
- 2023.03.16 매일신문 대구시의회, 洪 추진 '무임승차 70세 상향' 조례안 심사 유보
- 2023.03.16 [B tv 대구뉴스] 대구시의회 건교위,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유보'
- 2023.03.16 브레이크뉴스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 교통 연령 통일 조례 개정안' 심사 유보
- 2023.03.16 경북도민일보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구시의회 문턱 못넘었다
- 2023.03.17 서울신문 홍준표 發 '무임승차 연령 조정'... 대구시의회, 심사 유보
- 2023.03.17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회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유보 다행"
- 2023.03.20 뉴스민 대구시 정책토론 유명무실화 시도...“민주주의도, 토론도 싫어하는 홍준표”
- 2023.03.20 노컷뉴스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 추진에 시민단체 "제도 무력화" 반발
- 2023.03.20 오마이뉴스 대구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 입법예고... "민주주의 후퇴"
- 2023.03.20 대구MBC "대구시의 정책토론 청구 조례 무력화 규탄"
- 2023.03.20 브레이크뉴스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 입법예고... 시민단체 "제도 무력화 철회 촉구"
- 2023.03.22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안, 여론 강력 반발
- 2023.03.22 브레이크뉴스 대구 시민단체, 노인 무임교통 대상 축소 조례안 부결 촉구
- 2023.03.23 매일신문 대구 시민단체 "노인 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의결 반대"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2023.03.23 브레이크뉴스 "대구시의회, 졸속 정책 거수기 역할 '그만' 잘못된 정책 견제해야 "
- 2023.03.23 영남일보 대구시민단체 "노인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 철회 촉구"
- 2023.03.23 THE FACT 대구시의회 조례안 심사 방청하다 쫓겨난 시민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반대
- 2023.03.23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폐기를"
- 2023.03.23 경북신문 대구시, 15년 만에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손질
- 2023.03.23 대구MBC 더 많은 참여 이끈다더니..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인 수 늘려
- 2023.03.23 TBC 무임승차 조례안 상임위 통과..."집행부 거수기"
- 2023.03.23 한겨레 '전철 무임승차 70살로 상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2023.03.24 글로벌이코노믹 대구경실련 등 시민3단체, 대구시의 거수기 대구시의회 강력 규탄
- 2023.03.28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대구교통공사 채용 방식에 문제 있다" 지적
- 2023.03.28 KBS '불공정 논란' 대구교통공사, 지원 자격 변경
- 2023.03.28 BBS NEWS 대구교통공사, 신입사원 지원 자격제한 변경키로
- 2023.04.03 뉴스민 대구교통공사, 채용 특혜 논란 자격 수정...노조 "불공정 요소 여전"
- 2023.04.03 뉴시스 참여연대, 청주시에 '대형마트 휴업 변경' 반대 의견서
- 2023.04.04 동아일보 불법 수의계약, 부적절한 인사 채용... 대구 중구-의회 공정성 논란
- 2023.04.05 프레시안 "대구시 시정혁신단장 등 홍준표 측근들 SNS 활동 도 넘었다"
- 2023.04.08 KBS '대중교통 무임승차연령' 시민토론회 청구
- 2023.04.10 평화뉴스 시민단체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인 5배?...제도 무력화, 개정안 철회"
- 2023.04.11 매일신문 [단독]주민참여예산이 '공무원' 참여예산?...강제할당 논란
- 2023.04.11 프레시안 홍준표 발탁 고위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심각"
- 2023.04.12 매일신문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 동원...지역 시민단체, 대구시에 감사 촉구
- 2023.04.24 평화뉴스 위안부 할머니의 울분..."포스코,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굴종"
- 2023.04.25 대구MBC [뉴스비하인드]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
- 2023.04.25 프레시안 "포스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기금 출연 거부하라"
- 2023.04.25 뉴스클레임 "포스코, 강제동원 제3자 변제기금 출연 거부해야"
- 2023.04.25 대구MBC "시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늘려야"
- 2023.04.26 대구MBC [뉴스+] 대구 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한 이유는?
- 2023.04.26 뉴스클레임 대구·경북 시민단체 "日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 2023.04.27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고위간부 '공직선거법위반' 수사 의뢰
- 2023.04.27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이시복 대구시 정무조정실장 수사 의뢰
- 2023.04.27 노컷뉴스 홍준표 고발한 대구참여연대, SNS서 홍 시장 홍보한 공무원도 수사 요청
- 2023.04.27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고위공무원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 2023.04.27 뉴스1 "공무원이 SNS에 시장 업적 홍보"...대구참여연대, 시 정무직 수사 의뢰
- 2023.04.27 세계일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고위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 2023.04.27 프레시안 대구참여연대, 시 고위간부 경찰에 수사 의뢰
- 2023.04.27 TBC 대구시 간부 공무원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
- 2023.04.27 평화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업적' 게시...정무직 공무원 '선거법 위반' 조사
- 2023.04.27 KBS "대구시 간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해야"
- 2023.05.01 중앙일보 홍준표 폐복글 '좋아요' 누른 공무원...선거법 위반 논란 터졌다

- 2023.05.10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 취재 거부 이어 기자 고발한 대구시 규탄
- 2023.05.11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과 고위 공무원 도 넘은 반민주 퇴행 규탄
- 2023.05.11 평화뉴스 대구시, 대구MBC 출입 막고 취재 거부...시민단체·기협 "언론탄압 중단"
- 2023.05.11 경북신문 대구시민단체, 취재거부에 고소까지...대구시의 반민주 퇴행과 언론탄압 규탄
- 2023.05.14 미디어오늘 대구시 '취재 거부' 사태 길어진다..."홍준표, 제왕으로 착각"
- 2023.05.24 뉴시스 대구 중구의회 '갑질, 고발, 짝퐁판매까지'...왜 이러나?
- 2023.06.04 연합뉴스 "이런 출장보고서 쓰려고 7천만원 들여 해외연수갔다"
- 2023.06.04 한국경제TV 7천만원 들여 유럽·일본 다녀온 의원들...부실 출장보고서 논란
- 2023.06.04 대구신문 대구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연대 나서
- 2023.06.05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부실 해외연수...심사기능 작동 안 돼"
- 2023.06.05 매일신문 참여연대 "대구 지방의회 해외연수, 외유성 일정 문제점 반박"
- 2023.06.05 KBS [집중취재] '세금 낭비 지적했지만'...유명무실 사전 심의
- 2023.06.05 TBC "지방의회 연수, 기준표 따라 체계적 심사해야"
- 2023.06.06 경북신문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부실 해외연수 조레 무용지물...제도개선" 촉구
- 2023.06.08 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대구 대책위 출범..."先구제 後회수 방안 마련해야"
- 2023.06.08 브레이크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위법 인사, 재량권 남용..." 감사원 감사청구
- 2023.06.08 영남일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출범
- 2023.06.08 경북일보 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책위원회 출범
- 2023.06.08 대구MBC 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위법 인사·재량권 남용" 감사 청구
- 2023.06.08 대구MBC [심층] "유명무실한 특별법"...대구 전세 사기 대책위 구성
- 2023.06.08 오마이뉴스 "대구 전역서 전세사기"에도 대구시는 "지원센터 계획없다"
- 2023.06.08 안동MBC [R]'유명무실' 특별법..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
- 2023.06.08 영남일보 "대구 전역도 전세사기 피해 위험지역"...전세사기 피해 대구 대책위 출범
- 2023.06.08 대구MBC 전세 사기 대구 전역에 속출..."대구시는 어디 있나?"
- 2023.06.08 매일신문 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 직접 '신고상담·지원' 나선다
- 2023.06.08 대구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대구 대책위 출범...공동 대응 나서
- 2023.06.15 연합뉴스 대구시의회, 가창면 편입 전문가 간담회..."주민의견 더 들어야"
- 2023.06.15 뉴스민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전문가 간담회...다수가 부정적 의견 제시
- 2023.06.15 브레이크뉴스 대구시의회, 가창면 수성구 편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3.06.15 오마이뉴스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전문가들도 부정적 의견
- 2023.06.16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적극 고려해야"
- 2023.06.16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대구시경찰청에 홍준표와 측근 수사 촉구
- 2023.06.19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신청 신중하게"
- 2023.06.19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시의회, 가창 편입 동의안 유보하고 깊이 숙고해야"
- 2023.06.19 대구MBC "대구시의회, 가창 편입 동의안 유보하고 숙고해야"
- 2023.06.19 경북신문 대구참여연대 "가창면 수성구 편입 신청 동의안 유보" 촉구
- 2023.06.19 KBS "대구시의회, 가창면 수성구 편입 유보해야"
- 2023.06.23 SBS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YTN [속보] 대구경찰청, 대구시청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관련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2023.06.23 뉴시스 [속보]경찰, 공직선거법 고발 관련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뉴스민 경찰, '홍준표 SNS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대구신문 대구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영남일보 [속보] 대구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 2023.06.23 매일신문 [속보]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연합뉴스 [3보]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국민일보 대구경찰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관련 압수수색
- 2023.06.23 동아일보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 2023.06.23 노컷뉴스 대구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 2023.06.23 KBS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대구시·홍준표 "보복 수사"
- 2023.06.23 대구MBC [속보] 홍준표 선거법 위반 관련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MBN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국민일보 대구경찰 시청 압수수색...“퀴어행사 때문 아니다”
- 2023.06.23 SBS 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대구시청 압수수색
- 2023.06.23 YTN 대구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023.06.23 뉴스민 홍준표, “대구경찰 보복수사” 성토허지만, 사실관계는...
- 2023.06.25 대구신문 洪 "보복수사" vs 경찰 "퀴어축제와 무관"
- 2023.06.26 평화뉴스 홍 시장 '깡패·순사' 폐북 대응...경찰 "군림", 시민단체 "막말"
- 2023.06.27 KBS 시민단체·공무원노조, 홍준표 대구시장 언행 질타
- 2023.06.27 오마이뉴스 특정 정파 선봉대라고?... "홍준표 색안경 좀 벗어라"
- 2023.06.28 글로벌이코노믹 경찰과 싸우라 시민단체와 싸우라 바쁜 홍 시장과 대구시
- 2023.06.29 여성신문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퇴행과 폭주 멈춰야"
- 2023.06.29 평화뉴스 대구참여연대, '퀴어축제 충돌'..."홍준표 시장, 공무집행방해 고발"
- 2023.07.04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정 1년은 퇴행과 폭주의 시간”
- 2023.07.04 KBS 참여연대 “홍준표 1년, 퇴행과 폭주의 시간”
- 2023.07.04 평화뉴스 홍준표 1년..."경제성과 최고" 자평, 시민단체는 "퇴행과 폭주"
- 2023.07.04 대구신문 영터리 연수 소감문 언제까지...달서구의원, 대학생 글 '복붙'
- 2023.07.05 뉴스민 대구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토론회...시민 결의문도 발표
- 2023.07.06 TBC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민 대토론회 열려
- 2023.07.06 브레이크뉴스 대구서 윤석열 정권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대토론회 열려
- 2023.07.08 연합뉴스 "구청장·의장이 1억원 고급차 타야 하나"...의전차량 교체 논란
- 2023.07.08 한국경제 "공무원이 굳이 1억짜리 고급차를..." 의전차량 교체 논란
- 2023.07.08 해럴드경제 구청장, 기초 의회 의장 의전차량이 1억?...세금 '핑핑'
- 2023.07.08 SBS 구청장·의장 의전차량에 1억 전기차...시민단체 "그럴 필요 있다"
- 2023.07.08 디지털타임스 "구청장·의장 고급차 탈 이유 일(1)도 없다"...시민들 압력 거세
- 2023.07.08 매일신문 공무원이 1억짜리 고급차를? 구청장·의장 의전차량 예산 논란
- 2023.07.10 대구MBC [뉴스비하인드] '홍준표 사건' 수사 무기한 연장...측근 특혜 의혹도 나와
- 2023.07.10 BBS NEWS 대구참여연대 "김정옥·김재용·육정미, 대구시의원 역할 잘해"
- 2023.07.10 TBC 참여연대, "9대 대구시의회 시정 견제력 상실"

- 2023.07.11 연합뉴스 퀴어축제 '도로점용논란' 법정갈듯...주최측, 대구시 상대 손배소
- 2023.07.11 뉴스1 대구시 "시민단체 정책청구 청구인 엉터리...수사 의뢰할 것"
- 2023.07.11 서울경제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논란 법정 갈 듯
- 2023.07.11 시사저널 대구참여연대, '퀴어축제' 막은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
- 2023.07.11 뉴시스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충돌, 법정 공방 예고
- 2023.07.11 대구신문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 홍준표 대구시장 검찰 고발 의사 밝혀
- 2023.07.11 KBS 옆 의회와 똑같은 의정연수?...알고보니 '같은 업체'
- 2023.07.12 뉴스1 대구퀴어축제조직위·대구참여연대, 국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 2023.07.12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손배 청구, 공무집행방해죄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 2023.07.12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허가 갈등 '소송·고발전' 비화
- 2023.07.12 대구MBC 퀴어 축제 충돌 후폭풍...'법적 대응' 공방
- 2023.07.12 뉴스민 홍준표의 대구퀴어축제 방해, 법정으로...“시민 존엄성 침해”
- 2023.07.12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장 고발
- 2023.07.17 서울경제 경북 폭우 피해 속출하는데...옆집 대구시장은 골프 라운딩 '논란'
- 2023.07.17 뉴스민 집중호우로 사망·실종 속출할 때 골프쳤다는 홍준표...“주말 일정은 프라이버시”
- 2023.07.17 KBS 전국 물난리 속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 논란
- 2023.07.17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집중 호우 내린 주말에 골프 친 홍준표 사과해야"
- 2023.07.17 브레이크뉴스 “집중 호우 시간에 골프 친 홍준표 시장 즉각 사과해야”
- 2023.07.19 아시아경제 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때 골프 부적절 지적 받아들인다” 사과
- 2023.07.19 평화뉴스 홍준표 시장, '수해 골프' 논란 나흘 만에 "상처 입은 국민께 사과"
- 2023.07.19 평화뉴스 30년간 '강제동원 피해자' 도운 일본인 "오염수 반대 한일 연대"
- 2023.07.20 뉴스민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유령회사 내세워 구청과 수의계약 들통
- 2023.07.20 뉴스민 대구참여연대, '홍준표표 도시철도 무임 연령 상향' 취소 소송 나선다
- 2023.07.20 뉴시스 대구 지하철 무료연령 상향' 추진 홍준표에...시민단체 "노인복지 축소" 성토
- 2023.07.20 매일신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하향"...지역 시민단체 '조례 취소 소송' 참가자 모집
- 2023.07.20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대구시 조례 불법, 소송 준비"
- 2023.07.20 오마이뉴스 대구지하철 무료연령 상향 추진... 시민단체 "홍준표, 노인복지 후퇴시켜"
- 2023.07.20 영남일보 대구참여연대, 市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취소 소송 추진
- 2023.07.20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취소 소송 준비
- 2023.07.20 TBC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하향 취소 소송 추진
- 2023.07.20 프레시안 대구시민단체 "도시철도 무료연령 상향 취소소송"
- 2023.07.21 매일신문 대구참여연대 "'유령회사' 논란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사퇴하라"
- 2023.07.21 브레이크뉴스 대구 중구 배태숙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사실로 드러나
- 2023.07.21 경북일보 대구참여연대 "배태숙 중구의원 사퇴해야"...중구청 계약업무 전체점검도 촉구
- 2023.07.21 평화뉴스 차명회사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감사원 적발...시민단체 "사퇴"
- 2023.07.21 포항뉴스 수해 와중에...동해안 연수 떠난 의원들
- 2023.07.21 대구MBC [단독] 대구 팔거천 실종 사고 날, 주민 대표들은 없었다
- 2023.07.21 안동MBC [R]수해 와중에...동해안 연수 떠난 의원들
- 2023.07.22 프레시안 대구 중구의원 차명 수의계약... "자진 사퇴하라"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2023.07.22 THE FACT 유령회사 앞세워 '폭리'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징계 제대로 될까
- 2023.07.23 영남일보 부의장이 유령회사 차려 구청과 수의계약...대구중구의회 "왜 이러나"
- 2023.07.23 영남일보 대구참여연대, 수해 중 연수 떠난 의원들 진상조사·중징계 촉구
- 2023.07.24 뉴스민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징계 결정 예정...시민단체는 제명 촉구
- 2023.07.26 뉴스민 아들이 직원인데 법 위반 몰랐나?...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될까?
- 2023.07.27 영남일보 윤리특위 10분 전 위원장 사퇴...'한편의 코미디' 대구 중구의회
- 2023.07.27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배태숙 의원 즉각 사퇴하라"
- 2023.07.27 경북일보 대구 중구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태숙 징계 보류
- 2023.07.27 뉴스민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징계 양정 결정 보류
- 2023.07.27 THE FACT 대구시 중구의회, '유령회사 폭리' 배태숙 의원 징계 결정 보류
- 2023.07.27 KBS 참여연대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제명해야"
- 2023.07.28 대구MBC [심층] '대구로' 운영사의 기업 분할, 매각이 목적?
- 2023.07.28 대구MBC [단독][대구로 집중 해부] ③대구로 운영사의 기업 분할...이유는 매각 때문?
- 2023.08.01 대구MBC [심층] 공공 배달앱 대구로, 업체가 협약 위반해도 묵인하는 대구시...
- 2023.08.01 대구MBC [대구로 집중 해부] ④대구로 협약 위반...대구시, 묵인한 이유는?
- 2023.08.02 대구MBC [심층] 대구로 운영 업체의 회사 지분 매각 법적 걸림돌 걷어내 준 대구시
- 2023.08.02 대구MBC [대구로 집중 해부] ⑤운영사 매각의 법적 걸림돌 제거해 준 대구시
- 2023.08.04 대구MBC [심층] '대구로' 공모 책임자가 운영사 감사 출신...
- 2023.08.04 대구MBC [대구로 집중 해부] ⑥대구시 공모 책임자, 7개월 전까지 운영사 감사
- 2023.08.07 대구MBC [뉴스비하인드] 특혜로 얼룩진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
- 2023.08.07 오마이뉴스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구의원 30일 출석정지... 시민단체 "유감"
- 2023.08.07 뉴스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대구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
- 2023.08.07 THE FACT '유령업체 폭리' 배태숙 대구중구의원 '출석정지 30일' 확정...시민단체 "경찰고발"
- 2023.08.07 노컷뉴스 유령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징계 하향에 "대구 중구의회 해산하라" 비판
- 2023.08.07 뉴스민 대구 중구의회, 차명회사 논란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 2023.08.07 영남일보 윤리위 '제명' 뒤엎은 대구 중구의회...부끄러운 '제 식구 감싸기'
- 2023.08.07 매일신문 제 식구 감싸기? 유령회사 만든 기초의원, 제명 대신 출석정지
- 2023.08.07 일요신문 배태숙 대구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시민단체 "매우 유감"
- 2023.08.07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배태숙 의원 제명 부결시킨 중구의회 규탄"
- 2023.08.07 SK브로드밴드 배태숙의원 '30일 출석정지' 확정...시민단체 '고발' 예고 (대구)
- 2023.08.07 프레시안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중구의회... 시민단체 "해산하라"
- 2023.08.08 대구신문 민선8기 1년 대구 중구의회 잇단 잡음
- 2023.08.09 한국일보 민선9기 1년 TK 기초의회 잡음 "속출"
- 2023.08.09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꿈수 수의계약' 배태숙 구의원 등 10명 내일 고발
- 2023.08.09 평화뉴스 핵오염수 반대, 기후위기, 대구독립기념관 건립...광복절, 또 다른 '독립운동'
- 2023.08.09 대구신문 "존립근거 스스로 걷어찬 대구 중구의회 해산하라"
- 2023.08.10 경북일보 대구 시민단체,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김오성 의장 경찰 고발
- 2023.08.10 연합뉴스 시민단체 "대구 중구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경찰 고발
- 2023.08.10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꿈수 수의계약' 배태숙 구의원 등 10명 고발

- 2023.08.10 영남일보 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 대구 중구의회 고발
- 2023.08.10 뉴스민 대구 시민단체, '유령회사' 배태숙 중구의원 경찰 고발
- 2023.08.10 뉴스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구 시민단체, 중구의회·의원 등 10명 고발
- 2023.08.10 THE FACT 시민단체,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김오성 의장 경찰 고발
- 2023.08.11 TBC 대구 중구의원 3명 비위 논란에 제 식구 감싸기
- 2023.08.11 TBC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대구 중구의원 고발
- 2023.08.11 내일신문 대구 중구 감사원 감사 후폭풍
- 2023.08.11 대구MBC 대구 시민단체, 배태숙 대구 중구 의원 등 10명 고발
- 2023.08.14 뉴스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광복절 대구시민 걷기 대회
- 2023.08.15 매일신문 광복절 맞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걷기대회
- 2023.08.15 영남일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걷기대회 열려
- 2023.08.15 오마이뉴스 대구 시민들, 태극기 대신 '핵오염수 반대' 들고 분노 행진
- 2023.08.15 평화뉴스 8.15 광복절, 대구 동서남북에서 울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 2023.08.18 대구MBC [심층] "대구로페이, 결제 되나요?"...직접 가게들 찾아가 봤더니
- 2023.08.18 대구MBC ['대구로' 집중 해부] ⑦준비 안 된 전환..."누구를 위한 행정?"
- 2023.08.22 대구MBC [토크와이드] "기초의회 부정·비리, 주민이 심판해야"
- 2023.08.23 영남일보 군위군 '대형 양계장 부정·비리' 놓고 시민단체 "진상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 2023.08.23 THE FACT 대구참여연대, 군위군 대형 양계장 관련 부정·비리 엄단 촉구
- 2023.08.23 일요신문 군위군 대형 양계장 부정·비리...시민단체 "관련자 책임 물어야"
- 2023.08.30 대구MBC 핵 오염수 투기 중단 규탄 대회' 열려
- 2023.08.30 BBS NEWS 대구참여연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민자방식 반대
- 2023.08.30 오마이뉴스 "대구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자로? 앞산터널 잇었나"
- 2023.08.30 매일일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잇는 '팔공산 관통 도로' 민자 안 돼"
- 2023.08.30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국비로 진행하라"
- 2023.08.30 KBS 대구지역 야권·시민단체, 日 오염수 중단 집회
- 2023.08.30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라지고 일본의 대변인만 보여"
- 2023.08.30 대구MBC "오염수 투기 중단에 정부 나서라" 여당 뺀 정당과 시민사회 한 목소리
- 2023.08.30 KBS 대구지역 야권·시민단체, 日 오염수 중단 집회
- 2023.09.02 영남일보 경찰, 군위군 대형 양계장 보조금 관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2023.09.02 THE FACT 경찰, 군위군 대형 양계장 주인 검찰 송치...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 2023.09.03 KBS 참여연대, '팔공산 관통도로 민자' 재검토 촉구
- 2023.09.05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전면 감사 촉구"
- 2023.09.05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감사 촉구"
- 2023.09.05 영남일보 구의원 비리 사건, 또 중구의회...권경숙 구의원 불법계약 의혹
- 2023.09.05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감사 촉구"
- 2023.09.05 매일신문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대구시에 감사 촉구
- 2023.09.05 대구일보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 감사" 촉구
- 2023.09.05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중구의회 의원 또 불법 계약...전면 감사 필요"
- 2023.09.05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전면 감사 촉구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3.09.05 뉴스민 대구참여연대, “대구 지방의원 불법계약 전면 감사해야”
2023.09.07 뉴스1 시민단체 "'대구로' 사업에 특혜...홍준표 시장 고발"
2023.09.07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대구로' 불법, 특혜...홍준표 시장 고발
2023.09.07 BBS NEWS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고발...“'대구로' 사업 불법.특혜 의혹 밝혀야”
2023.09.07 영남일보 지역시민단체, 공공 배달플랫폼 '대구로' 불법·특혜 의혹 제기
2023.09.07 경향신문 대구 시민단체 “'대구로' 사업에 특혜...홍준표 시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2023.09.07 대구MBC [심층] 홍준표 대구시장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 당해
2023.09.07 KBS 시민단체 ‘대구로’ 특혜의혹 홍준표 시장 고발
2023.09.07 평화뉴스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배임' 혐의 고발..."배달·택시업 대구로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2023.09.08 프레시안 특혜시비 대구로, 시민단체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2023.09.08 뉴스민 대구로 특혜 논란 쟁점 3가지...공모 과정·추가 예산·새 협약
2023.09.13 뉴시스 ‘대구로 특혜’ 소송전으로...경실련·참여연대 vs 대구시 맞고발
2023.09.14 노컷뉴스 시민단체 "대구로페이 실물 카드 발급 제한은 권리 침해" 권익위에 민원
2023.09.14 뉴스민 65세 이상만 실물카드 대구로페이, 시민 권리 침해?
2023.09.14 KBS ‘대구로’ 논란...대구시-시민단체 갈등 확산
2023.09.17 대구MBC 경찰 6달째 수사 중...홍준표 시장 수사 '깜깜무소식'
2023.09.18 대구신문 대구 동구의회, 5년간 조례안 예고 전무
2023.09.20 대구MBC "예산 아낀다더니..." 대구시, 기관 통폐합에도 임원 집무실·전용 차량 유지
2023.09.20 THE FACT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고위직 공공시설 특혜 사용 비판
2023.09.20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고위직들의 특혜 바로잡아야"
2023.09.25 대구MBC [심층] "대구로페이, 쓰기 불편해요"...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민원 신청
2023.09.26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대구시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 문제"
2023.09.26 글로벌이코노믹 대구경실련·참여연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효과 과장됐다"
2023.10.09 대구MBC [뉴스비하인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엇갈린 평가'
2023.10.10 대구MBC [심층] 불편해진 대구 지역화폐...대구시, 대구로페이 전환하면서 조례 위반?
2023.10.10 대구MBC [단독] 대구시, 무리한 대구로페이 전환...조례 위반까지?
2023.10.17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운영비는 국민의힘 의원들 싹짓돈"
2023.10.17 노컷뉴스 대구참여연대 "시의회, 교섭단체 경비 싹짓돈처럼 사용"
2023.10.17 KBS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경비는 ‘싹짓돈’”
2023.10.17 프레시안 대구참여연대 "시의회, 교섭 없는 교섭단체 경비는 싹짓돈"
2023.10.18 브레이크뉴스 "교섭 대상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 지출... 국민의힘 의원 싹짓돈"
2023.10.18 평화뉴스 대구시의회, 교섭 대상도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 국힘 식비로 454만원 지출
2023.10.19 매일일보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15개월 퇴행 넘실”...국감서 10대 문제 엄정 감사 요구
2023.10.20 프레시안 대구참여연대 "국감서 '홍준표 시정' 엄정 감사해야"
2023.10.20 브레이크뉴스 대구참여연대 "홍 시장 취임 15개월, 퇴행과 폭주의 시정...엄정 감사해야"
2023.10.23 KBS 참여연대, 대구시 국감 엄정 감사 촉구
2023.10.23 매일신문 대구시, 국정감사 온라인 생중계 없어..."알 권리 보장하라"
2023.10.25 KBS 참여연대 “홍준표, 신청사 계획변경 사과해야”
2023.10.31 대구MBC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났지만...사과도 후속 조치도 안 하는 대구시

- 2023.11.03 굿모닝충청 "지방분권과 자치 역행하는 '메가서울' 반대한다"
- 2023.11.08 대구신문 대구참여연대 "대구공공시설공단, 기관 통합 후 인사체계 문제 나타나"
- 2023.11.09 평화뉴스 "바다 죽이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대구 공동행동 결성, 1인시위
- 2023.11.09 뉴스민 대구 시민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결성
- 2023.11.13 매일신문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감사 건 처리 지연 심각”
- 2023.11.13 대구MBC 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감사 청구 등 늑장 처리"
- 2023.11.13 KBS “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등 늑장 처리 비판”
- 2023.11.13 대구MBC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짜 뉴스'...SNS로 허위 사실 유포
- 2023.11.14 대구MBC [만평] 홍준표의 '가짜 뉴스'...SNS로 허위 사실 유포
- 2023.11.14 대구MBC [심층] 슬그머니 '페이스북 거짓말' 글 고친 홍준표 대구시장...
- 2023.11.15 한겨레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영남 피해자들 “선구제 후회수”
- 2023.11.17 SK브로드밴드 전세사기특별법 6개월... 피해자 고통은 여전 (대구)
- 2023.11.19 대구일보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구의원, 윤리위 회부
- 2023.11.19 영남일보 구의원이 구청과 수의계약 17건...대구 중구의회, 징계안 상정
- 2023.11.20 대구MBC 측근 채우기 인사가 홍준표식 카르텔 타파?
- 2023.11.21 대구MBC [심층] '지역 기득권 카르텔' 타파한다더니...측근 심기 인사가 홍준표식 카르텔 타파?
- 2023.11.21 프레시안 불법 수의계약 징계안' 대구 중구의회 정족수 미달로 '불발'
- 2023.11.21 TBC 비위 의원 제명 결정했지만 확정도 못해
- 2023.11.23 대구MBC [심층] 홍준표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결국 해 넘기나?
- 2023.11.23 매일신문 대구시 내년 청년 예산 절반 줄었다...“최소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 2023.11.23 뉴스민 [2024 대구 살림] 청년 예산 절반 가량 삭감...자체 사업도 여럿 폐지
- 2023.11.24 평화뉴스 대구시, 내년 청년 예산 46% 삭감 ...일자리 393억 '썩둑' 최다
- 2023.11.27 뉴스민 바지사장 걸린 의원은 출석정지, 꺾직신고 한 의원은 제명한 대구 중구의회
- 2023.11.27 영남일보 중구의회 '불법수의계약' 권경숙 구의원 '제명'에... "배태숙 부의장은?" 형평성 논란
- 2023.11.27 대구MBC 한 지붕 아래 또 불법 수의계약...대구 중구 의원 '제명'
- 2023.11.28 대구MBC 참여연대 "대구 중구의회 존립 이유 상실"
- 2023.11.28 매일신문 징계 온상 된 대구 중구의회 “전원 사퇴하고 재구성해야”
- 2023.11.28 대구신문 대구 시민단체 "존립 이유 상실한 중구의회, 해산하고 재구성하라"
- 2023.11.28 KBS 시민단체 “대구 중구의원 일괄 사퇴하라”
- 2023.11.29 매일신문 시민단체 “연동형 비례제 유지·확대해야” 선거제도 개혁 촉구
- 2023.11.29 대구신문 "시장 역점사업에 예산 과다 집중...분산해야"
- 2023.12.04 대구신문 [대구논단] 청년 인구 20% 급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
- 2023.12.12 뉴스민 대구 진보5당-시민사회, 민주당에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규탄”
- 2023.12.12 뉴시스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 2023.12.12 뉴시스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 저지 진보5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2023.12.12 평화뉴스 대구 진보 5당 "병립형 회귀? 선거제도 퇴행...민주당 철회" 반발
- 2023.12.12 노동과세계 "거대양당은 선거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대구에서 촉구
- 2023.12.12 대구신문 대구 중구의회 '혈세 낭비' 논란
- 2023.12.13 영남일보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내년 1월로...'혈세 낭비' 논란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 2023.12.14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양당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공천 반대"
- 2023.12.14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중구 보궐선거에 양당은 공천 말아야"
- 2023.12.14 프레시안 대구 시민단체 "국힘·민주, 중구의회 보궐선거 후보 공천 반대"
- 2023.12.14 뉴스민 내년 1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책임 있는 양당 무공천 해야”
- 2023.12.14 KBS 대구참여연대, “중구의원 보궐, 양당 무공천해야”
- 2023.12.14 TBC 중구의회 보궐선거 내년 1월 31일...“혈세 낭비”
- 2023.12.20 오마이뉴스 흘러내린 오염수... 대구 동성로에 올려퍼진 “윤 정부 규탄!”
- 2023.12.28 대구MBC “게시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이게 대구시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
- 2023.12.28 대구신문 대중교통 요금조정 “게시 안 합니다”...대구시 잘못 올린 공지 해프닝
- 2024.01.03 BBS NEWS 대구참여연대, “노중기 대구미술관장 사퇴해야”
- 2024.01.03 영남일보 대구지역 시민단체 “노중기 선임 대구미술관장 선임 취소하라”
- 2024.01.03 글로벌이코노믹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 챙기기 정실 인사 강력 비판
- 2024.01.04 KBS “노중기 대구미술관장 임명 철회해야”
- 2024.01.04 한겨레 ‘홍준표 초상화’ 그려 대구미술관장?...“유착인사 철회” 비판 봇물
- 2024.01.04 경향신문 홍준표 ‘초상화 작가’ 대구미술관장 임명에 시민단체 반발...“선임 취소해야”
- 2024.01.04 매일신문 대구미술관장 선임' 논란, 지역 미술계 중심 거센 반발
- 2024.01.04 뉴스민 예술계도, ‘홍준표 친구’ 대구미술관장 선임두고 “독재적, 경악” 비판
- 2024.01.05 KBS ‘구의원 의정활동비 환수’...규정 없어 ‘오락가락’
- 2024.01.09 뉴시스 대구 참여연대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미지급 조레 필요"
- 2024.01.09 연합뉴스 대구시민단체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미지급·감액해야"
- 2024.01.09 매일신문 “징계 의원도 의정비 삭감해야”...대구 시민단체, 중구수성구의회 등 조레 개정 촉구
- 2024.01.09 대구MBC 대구참여연대 "출석 정지 지방의원 의정비, 미지급이나 감액해야"
- 2024.01.09 대경일보 대구시민단체, 지방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미지급·감액 제도화 시급
- 2024.01.10 KBS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깎거나 지급 안해야”
- 2024.01.11 THE FACT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찰청·감사원 '홍준표 시장 사건' 늑장 처리 규탄
- 2024.01.12 KBS 참여연대 “홍 시장 수사·감사 지연 규탄”
- 2024.01.14 경북신문 대구참여연대 “경찰청·감사원, 홍준표 시장 수사·감사 지연 규탄”
- 2024.01.15 SK브로드밴드 출석정지 징계에도 월급 지급...권익위 권고도 '나몰라라' (대구)
- 2024.01.15 영남일보 오락가락 법령 해석에 구의원 의정비 환수 '빨간불'
- 2024.01.25 대구MBC "대구시 '전세 사기 관련 조례안' 부실하다...시장 책무 명시해야"
- 2024.01.27 TBC 팍팍한 청년 삶...과감한 주거지원 정책 필요
- 2024.01.29 대구MBC 참여연대 "개혁 대신 퇴행...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해야"
- 2024.01.29 매일신문 국회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논의...시민단체, "제도 퇴행" 여야 규탄
- 2024.01.30 TBC 참여연대, "거대 양당, 기득권 수호에 혈안"
- 2024.01.31 오마이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윤석열 정부 거부권 독재 거부한다"
- 2024.02.01 매일신문 “대구MBC 취재 거부 진상 규명해야”...시민단체, 대구시에 대시민 사과 요구
- 2024.02.07 프레시안 대구시민단체 "양금희 의원 불법후원금 혐의, 수사 통해 사실 여부 가려야"
- 2024.02.13 THE FACT 대구참여연대, 군위군 대형 양계장 불법행위 공소시효 만료 결정에 유감 표명
- 2024.02.14 BBS NEWS 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촉구

- 2024.02.14 뉴스1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동결하거나 최소 인상해야"
- 2024.02.14 대구MBC 대구 참여연대 "대구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안 돼"
- 2024.02.14 프레시안 대구시민단체 "지방의회 활동비 최소 인상 촉구"
- 2024.02.14 뉴시스 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은 자산가"...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반대
- 2024.02.14 영남일보 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반대"
- 2024.02.14 매일신문 대구시, 각 구·군별 의정활동비 인상 공청회 일정 확정, 인상반대 목소리도
- 2024.02.14 영남일보 군위군 양계장 부정비리 공소시효 만료 종결...대구 시민단체 "엄정 수사 해야" 성명 발표
- 2024.02.14 TBC 의정비 최대폭 인상은 제 밥그릇 챙기기
- 2024.02.15 KBS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최소화해야"
- 2024.02.16 평화뉴스 대구경실련·참여연대, 현역 4명 포함 '공천 부적격자' 11명 발표
- 2024.02.16 KBS 대구 경실련·참여연대 "총선 부적격 현역 4명"
- 2024.02.16 일요신문 대구시민단체, 현역 국회의원 포함 '공천 부적격자' 11명 발표
- 2024.02.16 오마이뉴스 대구시민단체, 현역 4명 등 부적격 후보 11명 선정
- 2024.02.16 프레시안 [대구 총선] 시민단체, 부적격후보 공천 배제 촉구
- 2024.02.18 매일신문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미등록외국인 체포 논란...경찰도 '주의보'
- 2024.02.19 한국NGO신문 시민사회, 추경호·정청래 등 공천 반대 후보자 35명 선정
- 2024.02.19 평화뉴스 "이런 사람 국회의원 안됩니다"...시민단체 '공천반대' 1차 명단, TK 현역 5명
- 2024.02.20 뉴시스 대구 시민단체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 거부 중단하라"
- 2024.02.20 뉴스1 대구참여연대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의사 맞나...진료 거부 멈춰야"
- 2024.02.20 BBS NEWS 대구참여연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거부 중단하라"
- 2024.02.20 매일신문 "의사 집단 진료 거부는 부당"...의료 대란 우려에 시민단체도 비판
- 2024.02.20 대구MBC 대구 참여연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 거부 즉각 중단하라"
- 2024.02.20 평화뉴스 의사 진료거부' 확산...대구참여연대 "생명 담보, 명분 없다" 비판
- 2024.02.20 KBS 대구참여연대 "집단 진료 거부 명분 없어"
- 2024.02.20 TBC 대구참여연대 "집단 진료 거부 중단하라"
- 2024.02.20 대구신문 대구참여연대 "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거부 멈춰라"

대구참여연대 정관

[전 문]

대구 is 오랜 문화의 도시이자 민족자주와 민주화 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군사정권 등장 이후 대구는 지역적 배타성과 현실과 괴리된 보수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6년 3월 11일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1998년 4월 11일 대구참여연대가 출범하여 활동해 왔다. 그동안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해 온 두 단체는 그 역사와 성과를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실천해 온 시민사회형성 운동과 대구참여연대가 수행하여 온 참여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이어받아 정의로운 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 연대를 적극 실천하고자 새로운 출발을 결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대구참여연대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구현되는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대구참여연대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2. 인권 옹호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의 고발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4. 정책개발 및 시민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5. 민주시민교육 사업
6.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
7. 기타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가입)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을 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대구참여연대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6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대구참여연대의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2. 대구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대구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8조 (지위)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9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0조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③총회는 온라인 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모든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이전에 공고한다. 다만, 비대면 총회는 14일 이상 이전에 공고한다

제11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대구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3. 운영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4.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 (권한의 위임) 총회는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호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대구참여연대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4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 운영위원은 회원모임의 대표,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문위원,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출직 집행위원의 선출
2.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활동기구의장 임명 동의
3. 실행기구 및 정책기구, 특별기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모임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
6. 중요사업에 관한 결정

제3절 집행위원회

제1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대구 참여연대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들을 추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제19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및 각 활동 기구의 장, 사무처장 및 약간 명의 선출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의 집행
2. 각 활동기구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집행

- 4. 사무처의 설치 운영
- 5. 운영위원회 출석과 보고의 의무

제4절 공동대표, 자문위원회, 후원회, 감사

제22조 (공동대표)

- 1. 공동대표는 대구참여연대를 대표한다.
- 2.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다.

제23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에서 덕망을 갖춘 약간 명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 인선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24조 (후원회) 재정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감사)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할 4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5절 (활동기구) 실행기구 및 정책기구, 특별기구, 부설기구

제26조 (정의)

- 1. 실행기구는 대구참여연대의 정관에 근거한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약칭함)을 수행하는 사업영역별 실행단위를 의미한다.
- 2. 정책기구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 3. 특별기구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단위이다.

제27조 (실행기구의 운영)

- 1. 실행기구는 센터, 운동본부, 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한다.
- 2. 실행기구는 기구장, 실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 (정책기구의 운영)

- 1. 정책기구는 기구장, 정책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정책기구는 실행기구 혹은 사무처에서 요구받은 과제에 대하여 연구, 개발을 하거나 스스로 연구개발하여 실행기구 혹은 사무처에 사업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기구의 신설) 대구참여연대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회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단위를 둘 수 있다.

제30조 (기구장의 선임) 실행기구, 정책기구, 특별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해임의 경우도 그러하다.

제6절 지역조직과 회원 자치 모임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제31조 (지역조직)

1.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을 생활현장에서 실천하고 주민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조직을 둔다.
2. 지역조직은 대구시 및 경상북도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되 그 외의 경우도 가능하다.
3. 지역조직은 운영단위와 집행 및 실무단위를 둘 수 있다.
4. 지역조직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5. 지역조직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자치모임)

1. 대구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들의 자치모임을 둘 수 있다.
2. 자치모임의 신설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3. 회원자치모임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33조 (부설기관) 정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절 사무처

제34조 (구성) 대구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35조 (역할) 사무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되는 본회의 사업집행을 수행한다.

제4장 재정

제36조 (회계연도) 대구참여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1.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매년 총회에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는 예산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대구참여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8조 (수입) 대구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단, 회원회비 기준액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잔여재산 귀속) 단체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8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20년 4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22년 7월 13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1998년 4월 11일 제정
- 1998년 12월 19일 1차 개정
- 2000년 1월 22일 2차 개정
- 2001년 2월 2일 3차 개정
- 2002년 2월 2일 4차 개정
- 2003년 2월 7일 5차 개정
- 2004년 1월 30일 6차 개정
- 2004년 2월 27일 통합총회 개정
- 2005년 1월 27일 7차 개정
- 2006년 1월 20일 8차 개정
- 2007년 1월 26일 9차 개정
- 2007년 1월 20일 10차 개정
- 2010년 1월 29일 11차 개정
- 2011년 1월 25일 12차 개정
- 2011년 9월 26일 13차 개정
- 2012년 2월 29일 14차 개정
- 2017년 7월 28일 제15차 개정
- 2018년 2월 27일 제16차 개정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2020년 4월 22일 제17차 개정

2022년 7월 13일 제18차 개정

대구참여연대 歌

함께 꾸는 꿈

작사 대구참여연대

작곡 정현규

그대들의 꿈 펼쳐라 너와 나의 꿈 여기에

보다 더 정의롭게 보다 더 평등하게

사랑 내 사랑 친구야 걸을 한 걸음 걸어라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행복하게

하늘 바람 땅 춤춘다 나는 나답게 사람아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당당하게

그대들의 꿈 펼쳐라 너와 나의 꿈 여기에

보다 정의롭게 보다 더 행복하게

사랑 내 사랑 친구야 걸을 한 걸음 걸어라

보다 더 평화롭게 보다 더 행복하게

주 소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메 일 dgpeople@gmail.com

홈페이지 <http://civilpower.or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gpspd/>

후원계좌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정혜숙)
